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진영일*

—〈 차 례 〉—
서 론
1. 星主의 등장
2. 星主=神人之後
3. 三神人의 諸像
결 론

서 론

고려기에 들어서 탐라의 지배층은 星主라는 명칭을 띠고 고려에 조공을 하고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三神人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地理志 탐라현조(耽羅縣條), 「영주지(瀛洲誌)」 등에 3명의 神人和 3명의 神女가 고량부(高良夫)의 삼성(三姓)과 탐라국의 시조가 되었다고 설화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주로 국문학이나 민속학 분야에서 여러 연구 성과가 있다.

필자는 이런 연구업적들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본고를 작성하려 한다. 우선 고려기 三神人 중, 특히 현저하게 역사적 실재로서 등장하는 高氏에 대한 역사적 등장의 시기, 배경 등을 탐구하겠다. 물론 이것은 高氏가 이 섬에서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태곳적부터 존재해온 신적 존재가 아니었고, 당연히 어떤 역사적 시기와 사회적 배경 하에서 도내에서 우세 가문으로 출현하였다는 매우 상식적 견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신인이 나오는 문헌들, 그 중 자주 언급-인용되는 「영주지」와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조에 기재된 삼신인 기사에 관하여 內的 史料 비판(史料批判)을 시도하여, 삼신인 기사의 신빙성 여부를 물어보겠다. 이 작업은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저작자의 목적성, 시대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옛날부터 있어왔다는 삼성(三姓) 등의 성씨(姓氏)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야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리고 삼신인 설화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한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1. 星主의 등장

본도에서 왕자 칭호를 가진 부류들은 삼국시대부터 나오지만 성주는 “태조 21년(938) 탐라국 태자 말노(末老)가 내조(來朝)하였기에 성주왕자(星主王子)의 벼슬을 주었다”¹⁾하여 태조 21년 기사에 비로소 등장한다. 물론 그 이전 태조 8년(925)에도 탐라 사절이 고려조정에 와서 공물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성주왕자(星主王子)’란 호칭은 안 보인다. 따라서 성주란 태조 21년 이후에 제주도 수령(首領)들에 붙여진 명칭이었으며, 조선왕조(朝鮮王朝) 태종(太宗 4년, 1404) 본도에 좌우도지관(左右都知管)이 설치되어 星主制가 폐지될 때까지 466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우선 「고려사」에 보이는 星主·王子(이후 성주층「星主層」이라 약칭-필자 주)가 고려조정에 출현한 기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星主王子 來朝

年代(王一年-月, 西紀)	本島名·爵位	高麗官爵·名·姓名	관련사항	贈職·其他
태조 21-12, 938	耽羅國太子	末老	來朝	‘星主王子’ 爵
현종 15-7, 1024	耽羅酋長	周物		竝爲 ‘雲麾大將軍’
	아들(子)	高沒		

1) 태조 21-12 :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태조 8-12-을축: 耽羅貢方物.

2) 「三國史記」 문무왕 2년 2월(662년): 耽羅國主佐平 徒冬音律(津); 「冊府元龜」 龍朔元年(661): 羅王 儒李都羅; 「日本書紀」 齊明 7년 5월(661년): 耽羅王子 阿波伎 등.

年代(王-年-月, 西紀)	本島名·爵位	高麗官爵·名·姓名	관련사항	贈職·其他
현종 20-6, 1027	耽羅世子	孤烏鴛	來朝	授'遊擊將軍'
정종 9-12, 1043	毛羅星主	遊擊將軍 加利	豆羅近因卒	
	王子	豆羅	號仍繼之	
	王子	號仍	獻方物	
문종 3-11, 1049	耽羅國	振威校尉 夫乙仍 등 17인	來獻土物	
문종 7-2, 1053	耽羅國王子	殊雲那	來獻牛黃等物	授王子 '中虎將軍' 賜公服銀帶
	子	陪戎校尉 古物		
문종 9-2, 1055	耽羅國首領	高漢 등 158인	寒食饗	
문종 16-2, 1062	耽羅	高叶	來獻土物	
문종 16-10, 1062	耽羅星主	高逸	來獻方物	
문종 17-3, 1063	耽羅新星主	豆良	來朝	授 '明威將軍'
문종 22-3, 1068	耽羅星主	遊擊將軍 加也仍	來獻土物	
선종 3-2, 1086	毛羅	遊擊將軍 加於乃	來賀獻方物	
선종 7-1, 1090	星主	遊擊將軍 加良仍	加良仍死	支送贈賻之物
	母弟	陪戎副尉 高福	高福令繼之	
선종 9-2, 1092	耽羅星主	懿仁	來獻土物	加 '定遠將軍' 賜衣帶
현종 즉위-6, 1094	毛羅	高的 등 194인	來賀即位 獻土物	
현종 1-6, 1095	毛羅	高勿 등 88인	來獻土物	
숙종 6-10, 1101	毛羅新星主	陪戎副尉 具代		爲 '遊擊將軍'
의종 7-11, 1153	耽羅縣徒上	仁勇副尉 中連珍 直 등 12인	來獻土物	
충렬 20-11, 1294	耽羅王子	文昌裕	耽羅今歸我 (高麗)	賜 '紅鞞牙笏帽 蓋靴'
	星主	高仁旦		
공민 11-9, 1362	耽羅星主	高福壽	耽羅牧胡...以 星主高福壽叛	
우왕 1-11, 1387	星主	高實開	濟州人車玄有 以叛	星主等起兵盡誅
우왕 12-7, 1386	星主	高臣傑	耽羅歸順始此	
	아들(子)	高鳳禮		

• 「고려사」 참고 작성

필자는 이에 앞서 한 논문에서 탐라 성주들은 고려식 고씨성(高麗式 高氏姓)과 여진식(女眞式) 성명이란 이중성명(二重姓名)을 갖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표 1>에서 고오노(孤烏弩), 가리(加利), 호잉(號仍), 부을잉(夫乙仍), 수운나(殊雲那), 가야잉(加也仍) 등은 여진식 성명이었다. 동시에 고한(高漢), 고희(高叶), 고일(高逸), 고복(高福) 등은 고려식 성명이었다. 그리고 고씨성명(高氏姓名)은 탐라 내부이거나 육지 문벌을 의식한 고려식 성명이었고, 여진식 성명은 고려왕조로부터 그 기미책과 관련하여 무산계를 받을 때 사용된 특수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또한 탐라 성주들이 여진식 성명을 띠고 고려사에 나타나게 된 것은 고려왕조의 대여진(對女眞)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문종대(文宗代, 1046-1083)에 이르면 동변여진의 일부가 고려에 집단-이주하여 편입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고려정부는 그들에게 여진의 거주지에 고려식 주군을 설치하는 기미주(羈糜州)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려조정은 문종대에 이러한 기미정책은 빈번하게 이용하였으며, 그리고 내투여진인(來投女眞人)에게 하사품(下賜品)을 내리는 사물(賜物)과 수직(授職)하는 직상(職賞)을 가지고 이들을 우대하였다. 특히 이 무산계(武散階)가 고려식 직상(職賞)의 대표적인 예였다. 이런 고려의 대여진(對女眞) 정책은 여진이 자기들의 나라인 금국(金國)을 세우는 예종대(1105-1146)까지 계속되고 있었다.⁵⁾

이런 대여진(對女眞) 정책이 바로 탐라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탐라 성주층은 여진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조정으로부터 유격장군(遊擊將軍), 배용교위(陪戎校尉) 등이란 무산계 직위를 수여 받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탐라 지배층이 고려식 질서에 편입되고 있었음과 이것을 통하여 탐라국 내부에서 자기들의 권위를 확보하는 대외정책을 나타내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고려일대에 屋主-王子라고 칭하는 탐라 지배층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도 내에서 고려정부로부터 그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위신을 나타내는 외적 표지가 고씨로 상징되는 당시 문벌을 표시하는 고려식 성명, 그리고 고려 관작(官爵)을 받을 때 여진식 성명, 무산계 등의 직상(職賞) 등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성주층이 고려왕조로부터 받은 이러한 외적 표시 이외에도 도내 평민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어떤 정신적-고차적 권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성주층이 자기들은 神人의 후손이며 신성한 족속(族屬)이라 하여 섬 안에서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권위(ideological power)⁶⁾가 아니었나 한다.

4) 진영일,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인문학연구』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2), 93-99쪽.

5) 위의 논문, 119-123쪽.

2. 星主 = '神人之後'

정종 9년 '탁라성주(毛羅星主)'로서 가리(加利)가 '성주' 칭호를 쓰고 고려에 조공하였다. 그 후 문종 16년 탐라성주 고일, 문종 17년 신성주 두량, 문종 22년 탐라성주 가야잉 등이 역시 '성주'의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문종대(1046-1083)에 이르러서는 전시대 탐라국의 '국주(國主)'를 대체하지 않았는가 한다. 이 성주 칭호는 조정에서도 공인되어 이후 조선 태종 4년 고봉례 때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문종대 이후 성주 명칭은 고씨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탐라성주=고씨의 등식도 세상에 인정되게 되었다. 여기서는 필자는 이 성주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탐라성주 = '神人' 후손설(後孫說)은 본도에 널리 유포되었던 같다. 공민왕 16년(1367) 목호(牧胡) 달달목자(達達牧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러 온 제주선무사(濟州宣撫使) 임박(林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성주(星主) 등을 회유하면서 반란 진압에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공민왕 16년(1367)에 제주(濟州) 선무사(宣撫使)가 되었는데 임박(林樸)이 주(州)에 이르러 그 만호(萬戶)에게 이르기를, “달달목자(達達牧子)가 반측(反側)하기를 좋아하니 군(君)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무수(撫綏)하여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 하고 또 성주(星主) 탐라(耽羅)의 도수(島首) 왕자(王子)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곧 신인(神人)의 후예(後裔)인데 신라(新羅)에 들어와 성주(星主)가 되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 왕자(王子)가 되어 역대(歷代)를 복종하여 섬겼고, 역대 임금들도 또한 그대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각 한 마음으로 복종하여 섬겨 목자(牧子)와 더불어 변(變)을 선동(煽動)하지 말라.” 하니 이에 성주(星主) 왕자(王子)와 및 군민(軍民)이 모두 부복(俯伏)하여 말하기를, “감히 명령(命令)에

-
- 6) 종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수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이 있다. 그것들은 생산물을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경제적 역할, 무역규제, 전쟁과 외교 규칙들을 고안해내는 정치 군사적 역할들이다. 그 이데올로기 내용은 족보와 사회기원, 생활주기의 변화, 자연 풍요성에의 영향, 폭력의 정당화와 규제, 자기 친족집단, 마을, 국가를 초월한 정통적 권력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관심들을 갖는다. 이렇게 종교가 중심이 된 문화는 넓은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규범적 자기像(identity)과 동원력에서는 강력하지는 않으나 국가·군대·생산양식보다는 더 넓이 퍼져있는 협동능력을 제공한다(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21); 이데올로기적 조직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형태가 있다. 그것은 더욱 자율적 형태에서 사회-공간적으로 초월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경제·군사·정치적 군사력을 갖는 현존제도들을 초월하여 “신성한 형태”의 권위를 창출하며, 한층 세속적 권위구조와는 분리하여 그 상위에 위치한다(ibid., p. 23).

따르지 아니하리요.”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선무(宣撫)하는 자가 거의 모두 탐복(貪暴)하여 마음대로 침탈하니 인민(人民)이 심히 괴롭게 여겼으므로 목호(牧胡) 달달목자(達達牧子)가 자주 피어 반란을 일으켰다. 임박(林樸)이 가서 나주(羅州)에 이르러 물을 취(取)하여 웅(瓮)에 담아 돌아가고 비록 다탕(茶湯)이라도 입에 넣지 아니하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여 서로 이르기를, “성인(聖人)이 왔다. 왕관(王官)이 모두 임선무(林宣撫)와 같으면 우리들이 어찌 반(叛)함에 이르리요.”⁷⁾

선무사 임박은 성주와 왕자들을 ‘신인지후(神人之後)’라 부르며, 역대 고려왕들도 그대들을 매우 후대하였으므로 계속 충성하여, 몽고 출신 목호(牧胡)와 더불어 반란을 피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에 성주·왕자·군민들이 모두 그 말에 복종하고 있다. 필자는 언제부터 본도에서 성주층을 신인(神人)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인(神人)에 관해서 고려 당대의 사서·문집·비문(史書·文集·碑文) 등은 아무런 말이 없다. 다만 고려시대가 지나고 나서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사서(官撰史書)⁸⁾인 『고려사』 지리지(조선 문종 원년 완성, 145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세종 14년, 143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성종 12년, 148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 25년, 1530)⁹⁾ 등에서 ‘삼신인(三神人)’은 비교적 구체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는 그 내용이 동일하여서 『고려사』 지리지 편찬자는 『세종실록지리지』를 그대로 전사(轉寫)한 것이다.¹⁰⁾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삼신인’ 설화에 대해서 『고려사』 지리지를 근거로 하여 논고를 써나겠다. 이보다 후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별다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

그런데 사찬(私撰)이며 족보(族譜)와 같은 성격을 띤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태종 18년 경, 1418), 『영주지(瀛洲誌)』(연대 불명, 또는 세종 32년, 1450)¹¹⁾

7) 十六年，爲濟州宣撫使，樸至州，謂其萬戶曰，達達牧子，喜反側，君宜盡心撫綏，勿令生事，又謂星主王子曰，君輩乃神人之後，入新羅爲星主，入本朝爲王子，服事歷代，歷代之待君輩，亦甚厚，君輩宜各一心服事，勿與牧子扇變，於是，星主王子及軍民，皆俯伏曰，敢不唯命，先是，宣撫者率皆貪暴，恣其侵漁，民甚苦之，牧胡因誘以數叛，樸行至羅州，取水盛瓮而歸，雖茶湯不入口，民大悅，相謂曰，聖人來也，王官皆如林宣撫，我輩何至叛乎，然州人或有譏其載水者。

8) 이상태, 『지리지의 편찬과 지도제작』(『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58-169쪽.

9)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II)』(『역사학보』 69, 1976), 305쪽.

10) 文暉鉉, 『耽羅國 星主王子考』(『星主』 4, 高氏宗門會, 1990), 123-125쪽.

11)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집문당, 1992), 222쪽; 여기서 그는 『長興高氏家乘』에 실린

등에도 삼신인은 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성주고씨가전」은 정이오(鄭以吾)가 고득종(高得宗)의 부탁으로 저작한 가전(家傳)이므로 그 연대와 목적이 분명하여 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역사서술에서 사료(史料) 취급상 문제가 되는 그 저작연대와 저작자가 불명하고, 고유(高維)까지 언급되어서 고려 말이나 조선 초의 저작¹²⁾이라고 추정되는 「영주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주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홀연히 세 신선이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솟아 나왔는데 모흥혈이라 한다. 장(長)은 고을나, 차(次)는 양을나, 삼(三)은 부을나라 하였다.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모습이였다. 그들은 가죽옷과 육식(肉食)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하나 가업(家業)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목함(木函)이 동해 쪽으로 따라와 머물러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상인은 내려가 이를 열고 본즉 속에는 새알 모양인 옥함(玉函)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冠帶)를 한 사자(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 6세요, 용모는 품위 높고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금당의 해안 가에 내려놓았다.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의 벽랑국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하여짐에도 이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 나머지 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紫霄閣)에 오르시고 서쪽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神子) 세 사람이 절악(絶岳)에 내려와 있어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하나 배필이 없어서 하고 있으니 신(臣)더러 명하여 세 공주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셔서 왔으니 좋도록 짝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사자는 홀연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세 신선은 곧 목욕 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그녀들과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일도라 하였고, 양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라 하였고, 부을나가 사는 곳은 제삼도라 하였다.

「영주지」 말미에 ‘景泰元年 [……] 高得宗謹誌’ 기사가 나오고, 景泰元年是 세종32년(1450)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영주지」 작성 연대를 추정하는데 매우 귀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12) 金奉玉, 解題「瀛洲誌」(「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1쪽.

15세손에 이르러 후(厚), 청(淸), 계(季) 삼형제는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을 거쳐 신라에 조공하였다. 때는 신라가 전성한 시대였다. 이때 客星이 남쪽 하늘에 보이므로 태사(太史)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국인(異國人)이 내조할 정상이라 하였더니 마침내 탐라왕이 신라에 내조하였으므로 왕은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 갑자기 귀한 손님을 얻었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리오”라고 하고는 후(厚)에게 성주(星主)로 하고, 청(淸)을 무릎 밑으로 오게 하여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왕자 동궁이라 불렀으며, 계(季)를 도내라고 하였다. 남쪽 나라라는 뜻에서 탐라라 개칭하고, 각각 의관과 보개를 하사하고, 친히 남도(南道)까지 전송하니, 차와 기병 짐수레 등 수행원이 백리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신라를 섬기어 그 벼슬을 세습하며 번신(蕃臣)의 예로서 수교하였다. 후의 12세손 담(聃)에 이르러 백제에 신사하였는데 담이 죽은 뒤 오랫동안 섬기지 않았으므로 백제 동성왕은 경신년(庚申)이래 탐라가 조공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크게 노하여 군사 4천기(千騎)를 인솔하여 친히 정벌하고자 남쪽 요새 무진주(武珍州[지금 광주])까지 이르렀을 때 탐라왕 소昭는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으므로 그 군대를 회군하였다. 고려 태조 21년 무술에 탐라왕 고자견은 태자 말로를 파견하여 내조하였으므로 성주와 왕자의 벼슬을 내리고 이로부터 고려에 신사하였다. 고려조에 처음 벼슬을 한 사람은 고유(高維)에 이르러 시작하였다. (영주지[瀛洲誌], 규장각[奎章閣] 장[藏];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耽羅文獻集)』, 소수(所收), 1976, 2-4쪽).¹³⁾

13) 原文: 瀛州 太初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 登漢擎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嘗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蔥蘢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卽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徒 良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至十五世孫 厚淸三昆季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已而耽羅來朝 新羅王喜曰 子以不德 遽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淸令出胯下 愛如己子 名曰王子東宮 以季爲徒內 改耽羅爲南化國 各賜衣冠寶蓋 親送南道 車騎輜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 以修蕃臣之禮 至厚十二世孫聃 服事百濟 聃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 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 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戊戌(二十一年) 耽羅國主自堅 遣太子末老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見 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

「영주지」의 위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사료(史料)로 인정하여 이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경현(文暻鉉)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1) 탐라가 신라에 먼저 조공하고 후대에 백제에 조공했다는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이것은 「영주지」 찬자(撰者)가 탐라가 문주왕(文周王) 2년(476) 이후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초적 역사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2) 「영주지」의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무지에 근거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영주지」 저작자는 “15세손에 이르러 후(厚), 청(淸), 계(季) 삼형제는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을 거쳐 신라에 조공하였다. 때는 신라가 전성 한 시대였다”라고 한다. 그 말 대로라면, 고후(高厚)의 12 세손(世孫) 고담(高聃)이 백제에 내조(來朝)한 연대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왕 2년이다. 그러면 1대 30년으로 셈하여 330년을 역산하여, 11대조인 고후(高厚)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지마니사금(祗摩尼師今, 112-134) 때가 된다. 2세기 초기인 당시 신라는 사로국(斯盧國)으로서 진한 12국(國)의 한 나라에 불과하였고, 경주평야 정도를 지배하던 소국(小國)이었다. 이때 탐라국이 바다를 건너 여러 소국을 가로질러 사로국에 조공하였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3) 2세기 경 신라왕들에게는 성씨가 없었다.¹⁴⁾ 필자는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전경수(全京秀)도 「영주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 (1) 보통 「영주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다고 소개되고 있으나, 규장각이 아니라 장서각(藏書閣)¹⁵⁾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장서각에 소장된 「영주지」는 고씨의 족보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주지」가 「고려사」 지리지보다도 시대가 앞선 문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희박하다.¹⁶⁾ (2) 고씨

14) 문경현, 「耽羅國 星主·王子考」, 129-133쪽.

15) 奎章閣은 正祖가 즉위한 1776년 궐내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親筆의 書畫·願命·遺教·선보(璿譜: 王世譜)·寶鑑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그런데 藏書閣은 조선총독부가 1915년 昌慶宮 안에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을 짓고 李王職圖書課에 소장되었던 도서들을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소장된 도서는 역대 왕들의 御製 및 선원보책(璿源譜冊) 외에 各軍營으로부터 모은 九衛隊 수장도서 등으로 이루어졌다.

(엔사이버 백과사전, <http://search.encyber.com> 규장각·장서각 참조)

16) 전경수는 영주지가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는 혹자의 주장을 보아서 2년여에 걸쳐서 규장각을 뒤졌으나, 영주지라는 것은 규장각 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고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고 한다(「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濟州島研究』 9, 제주도연구회, 1992], 263쪽). 그러나 필자는 그의 노력은 매우 정성들인 것이나 徒勞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1979년도에 영주지의 원본이 昌慶苑 藏書閣에 소장되었다고 「耽羅星主遺事」(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編, 1979)의 편찬자는 소개하고 있다(同書, 326쪽). 지금 이

의 족보에 있는 내용의 신화는 고씨 집안의 부탁에 의해서 영의정을 지낸 정이오(鄭以誦)라는 사람이 작성해 준 것이다. 거기서 을나(乙那)신화는 조선초기에 성씨의 개념이 들어가는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3) 조선초기부터 성숙하기 시작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씨와 가문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영향 아래서 을나신화에 등장하는 성씨의 고·량·부씨(高·良·夫氏)의 서차(序次)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4) 조선이라는 중앙집권적 왕권이 등장하자 전시대의 탐라국 대신하여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이 을나신화를 집안의 영광을 위해 변형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5) 조선시대에 “삼성묘(三姓廟)”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종묘를 세운 것과 유사한 성리학적 발상으로 이것은 제주도의 민심, 특히 본도의 토호적 존재들로서 가문들의 지지를 얻어 중앙정부의 통치에 협력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¹⁷⁾

필자도 「영주지」(이후 영주지라고 약칭: 필자 주)를 사료(史料)로서 이용할 때, 「고려사」 지리지(이후 지리지라고 약칭: 필자주)에 비하여 그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영주지는 그 저작 年月日과 저작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그 역사 자료로서 근거가 없다. 이것은 역사적 자료가 우선적으로 그 작성된 年月日, 그러지 못하면 고려 중기라든지 조선 초기라는 대충 그 시기라도 있어야 사료로서 그 구성조건이 갖추어진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료 자체에 어떤 내적 증거라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 조건이 없을 때, 「영주지」의 무엇을 믿고 역사적 사료로써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는 고문서(古文書)에서 막연한 옛날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 역사적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지리지와 「영주지」의 문장 구성을 비교해보겠다.

〈표 2〉 「고려사」 지리지와 「영주지」의 내용 비교

지리지 구절	영주지 구절
해당 기사 없음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三人遊獵荒僻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해당 기사 없음	登漢孳山

장서각은 한국정신문화원으로 이전되었다.

17) 全京秀,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濟州島研究』 9, 濟州島研究會, 1992), 263-264쪽.

지리지 구절	영주지 구절
我是日本國使	我東海中碧浪國使
해당 기사 없음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竊窈
	各修飾共坐 [……]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霄 嘗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蔥蘢
將欲以開國而無配匹	宜用伉儷之禮 以成大業
西海中嶽	中有絕岳
日就富庶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양자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영주지의 작자는 지리지에 비하여 매우 수사적(修辭的)이며 난해한 한자어구를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지의 三神人 설화의 고씨를 신비화하는 수법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영주지 작자는 현란한 수사적 한학문구(漢學文句)로써 지리지의 기사를 운색하고 가필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수식(修飾[修飾邊幅, 외관]), 금당(金塘[아름다운 연못: 池塘]), 항려(伉儷[配偶者]), 절요(竊窈[정숙한 여성: 窈窕淑女]) 등의 고전적이며 난해한 한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지리지의 단순한 사실적 기사를 가필하고 운색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한문 문구들도 바로 영주지의 권위를 높이려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한다. 곧 이러한 고전적 문구로써 장식된 영주지가 그런 고전에 대한 엄청난 학식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범인의 비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의 모든 기사들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아니었나 한다. 영주지 기술의 최종적 목적은 지리지에 없는 구절, 즉 “구백년 후에 고씨가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서 탁라국(毛羅國)의 임금이었다(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하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영주지의 저작자는 고씨가 아득한 태초부터 탁라국의 군주였음을 본도 내외에 알리려는 데에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영주지의 기사는 매우 신비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곧 지리지의 ‘아일본국사(我日本國使)’이란 한 구절이 영주지에서 ‘동해벽랑국사(東海中碧浪國使)’이란 어구로 둔갑되고 있다. 영주지는 지리지의 ‘일본국 사신’이란 단순한 사실적 기사를 푸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미지의 '벽랑국(碧浪國) 사신' 으로 바꿔 표현하여 고씨 조상의 배우자인 처녀 3인의 출자를 신비화하고 있다. 또한 서해 중에 있는 큰산을 의미하는 지리지의 '서해중악(西海中嶽)' 이란 구절이 영주지에서는 깊고 험한 산이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중유절악(中有絕岳)' 이라 변경되고 있다. 이 모든 수식적 문구들은 영주지의 기사들을 신비한 분위기를 감싸 고씨 조상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영주지는 탐라를 태초에 신선(神仙)들이 노니는 선계(仙界)로 형상화하고 있다. 선계란 바로 도가적(道家的) 우론(宇宙論)의 반영이었다. 이연재(李演載) 씨는 선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선계는 흔히 천선계(天仙界), 지선계(地仙界), 수선계(水仙界)로 구분된다. 천선계의 형상은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매우 환상적이다. 거기에 있는 선경(仙京), 전각(殿閣), 누성(樓城), 문호(門戶), 정대(庭臺), 단(壇) 등의 모두가 그러하다. 지선계는 '山' 과 신선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는 삼신산 전설과 명산에서 신선이 노닌다는 갖가지 서화(書畵)가 성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신선 굴택으로 믿어져 여기서 많은 변용적인 설화들이 파생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영주(瀛州)¹⁸⁾, 삼신산(三神山), 금당(金塘), 선정(仙亭), 영암(靈巖), 팽택(彭澤), 방장(方丈) 등이 있다. 수선계는 연궁(蓮宮), 벽해(碧海), 동부(洞府), 벽파(碧波), 수선궁(水仙宮) 등의 시어(詩語)로써 표현된다. 그리고 신선들이 가지고 사용하던 선물(仙物), 선기(仙器) 등으로 표현되는 선보(仙寶)가 있다. 예 것들은 금인(金印), 금궤(金匱), 금병(金屏), 금정(金井) 등이다.¹⁹⁾

이런 도가 사상을 반영하여 영주지는 제주도, 특히 한라산을 신선향(神仙鄉)이며 고씨 조상들은 바로 신선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주(瀛州) · 삼신산(三神山) · 금당(金塘)은 바로 지선계를 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벽랑국(碧浪國)은 '벽파(碧波)' 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수선계에 속한다. 기타 신선사상과 연관된 어구들을 보면, 서상(瑞象)을 의미하는 '자소각(紫霄閣)' 의 '자소(紫宵)', '청의처자(青衣處子)'

18) 瀛州는 三神山이 소재한 곳이며 거기에는 仙人이란 不死不老하는 신비한 인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原典은 다음과 같다. 司馬遷, 『史記』 卷 6, 本紀, 秦始皇 28年: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州(正義: 漢書郊祀志云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蓋會有至者 諸仙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白銀爲宮闕 未至 望之如雲 及至三神山 乃居水下臨之 患且至 風輒引船而去 終莫能至云 世主莫不甘心焉) 僊人居之 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正義: 括地志云 瀛洲在東海中 秦始皇使徐福將童男女入海求僊人 止住此洲 共數萬家 至今洲上人有至會稽市易者 吳人外國圖云 瀛洲去瑯 萬里).

19) 李演載, 「高麗詩와 神仙思想의 理解」(亞細亞文化社, 1989) 152-172쪽.

의 '청의(青衣)', '자기(紫氣)' 등도 신선(神仙)이거나 신선향(神仙鄉)을 상징하는 시적 언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라산(漢拏山)'이란 말 자체가 천선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한라산은 글자 그대로 天仙界를 뜻하는 한수(漢水) 곧 은하수(銀河水)를 끌어당길[拏] 수 있을 정도로 천상(天上)에 맞닿아 있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天仙界는 천경(天徑), 은대(銀漢), 은궁(銀宮), 은하(銀河), 천궤(天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필자는 영주지의 수식적이고 난해한 언어들인 바로 신선사상을 빌려서 태고 탐라를 신선향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처음 출현한 인물들인 고씨 종족이 신선의 후예라 하여 자기들의 본도의 모든 자원에 대한 선취권을 주장하는 매우 정치색이 짙은 사찬문서(私撰文書)라 하겠다.

또한 영주지는 지리지의 '삼인이 황량한 곳에서 사냥을 하였다'는 구절(三人遊獵荒僻)을 '항상 사냥을 하여서 그 때문에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이라고 改書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렵적 생계경제에 종사하였다는 삼신인을 늘기 좋아하였기 때문에 가업(家業)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유교적 도덕적 의미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것은 영주지가 본도가 태고에 거칠고 외딴 지역이라는 '황벽(荒僻)'하였다는 지리지의 표기에 불만을 가지고, 조상들이 외관을 꾸미고 예의를 갖추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수식공좌(修飾共坐)'라고 개서하여, 원래 그들이 문명개화(文明開化)한 인물들로서 대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상을 수식하려는 유교적 의식이 반영이었다고 하겠다.

한라산(漢拏山)이란 말이 『고려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공민왕 23년(1374)이다. 이때 최영은 본도 목호(牧胡)들이 주도한 반란을 진압하러 왔다. 그의 휘하들인 제장(諸將)이 한라산 아래 진을 치고 병사를 휴식하였다 한다(諸將屯漢拏山下休兵). 그 후 조선 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태종(太宗) 16년(1416), 6월 6일,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오식(吳湜)과 전 판관(判官) 장합(張合) 등이 본도에 관한 사의(事宜, 일의 마땅함을 조목조목 벌여 적은 서장)를 올렸다"한다. 그 계문(啓聞)에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濟州置郡之初漢拏山四面凡十七縣)"라고 하여 '한라산'이 나온다. 따라서 공민왕 이전에는 한라산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고려 후기 이후에 신선사상에 의거하여 山名이 붙여진 것 같다.

그리고 고려시기 성주는 북두칠성은 아니지만 별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다. 지리지에는 삼신인이 신라 조정에 조공할 때 객성(客星)도 동시에 출현하였다고 한다.

15세손에 이르러 후, 청, 계(厚, 淸, 季) 삼형제는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

을 거쳐 신라에 조공하였다. 때는 신라가 전성한 시대였다. 이때客星이 남쪽 하늘에 보이므로 太史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국인(異國人)이 내조할 정상이라 하였더니 마침내 탐라왕이 신라에 내조하였으므로 왕은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 갑자기 귀한 손님을 얻었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리오”라고 하고는 厚에게 星主로 하고, 淸을 무릎 밑으로 오게 하여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왕자 동궁이라 불렀으며, 季를 도내라고 하였다(至十五代孫高厚淸, 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 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 曰王子 王令淸出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객성이란 제좌(帝座)를 뜻하는 별²⁰인데, 이 기사에서는 신라에 내조한 빈객(賓客)으로서 탐라 사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상(星象) 때문에 장자(長子) 고후(高厚)는 성주(星主)로 임명되었다 한다. 이것은 당시 본도의 수장격(首長格)인 고씨의 장자가 성좌(星座)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별이 조선왕조 초기이거나 중기 이후에 북두칠성(北斗七星)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전승이 칠성대(七星臺)의 연혁이 되고 있었다. 효종(孝宗) 4년(1653)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저술한 『탐라지(耽羅志)』 고적조(古跡條)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한다.

칠성도(七星圖)는 주성(州城) 내에 있는데 석축의 자취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삼도(三徒)를 나누어 차지하고 北斗星 모양을 본떠서 축대를 쌓고 나누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인하여 칠성도라고 불렀다(七星圖 在州城內 石築有遺址 三姓初出分占 三徒傲北斗形築臺 分據之因名七星圖).

17세기 중엽 본도인은 탐라의 중심지인 주성(州城)이 인간 거주지가 天仙界인 北斗七星²¹을 모방하여 설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것도 「고

20) 諸橋徹次, 『大漢和辭典』(修訂版) 卷3(大修館書店, 1986) 972쪽, 客星: 항상 나타나지 않고 임시로 출현하는 별. [史記 天官書] 客星出天廷 有奇令. 李相殷,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86), 353쪽, 客星犯帝座: 客星이 별의 제좌를 침범하였다는 뜻으로 천한 사람이 天子을 침범함을 이름.

21) 七星圖란 북쪽 하늘 큰곰자리(大熊座)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국자모양의 일곱 개의 별인 북두칠성을 본뜬 것이다. 중국에서는 七星을 天樞, 天璇, 天璣, 天權, 玉衡, 開陽, 搖光이라 하

려사」 지리지와 영주지에 보이는 본도가 天上界로서 신선향(神仙鄉)이라는 생각이 조선 초에 북두칠성과 연관되어, 주성의 중심지로서 칠성대(七星臺)가 건축된 것이 아닌가 한다.²²⁾

그리고 본고에서 중요한 문제는 연대-작자의 불명인 「영주지」를 누구 어느 시기에 작성하였는가를 특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주지는 역사 자료로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영주지는 한라산이라는 山名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 즉 공민왕대 이후에 작성된 고문서라고 상정된다. 영주지는 내용상 「고려사」 지리지와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과 비슷하며, 특히 후자와 거의 같다. 이 사이의 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대제학(大提學) 정이오(鄭以吾)가 고득종(高得宗)²³⁾의 부탁으로 태종 16년(1416) 「성주고씨가전」을 작성하였다. 이후 고득종은 다시 「성주고씨가전」을 신선사상과 중국 고전 문구로써 가필-윤색한 것이 바로 이열공파(李烈公派) 「장흥고씨가승(長興高氏家乘)」에 소재된 「영주지」였다(이후 장흥고씨 영주지라고 약칭-필자 주). 그 장흥고씨 영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 영주에는 인물이 없었다. 하루 홀연히 삼신인(三神人)이 땅 속에서 솟아나왔다. 한라산 북쪽 기슭에 광양(曠壤) 터에 품자(品字)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그 이름을 모흥혈(毛興穴)이라 한다. 삼인(三人)이 나올 때는 바로 구한(九韓) 때였다. 삼인 중 장자는 고을나, 다음은 양을나, 세 번째는 부을나라고 하였다. 그 모습들은

여 앞의 4별을 주격(魁)이라 하고 뒤의 3별을 자루(杓)라고 한다. 주격(魁)의 두별을 직선거리로 5배 정도 연장한 자리에 北極星이 있으며, 北斗七星은 北極星을 중심으로 圓을 그리며 회전한다(「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編, 1979, 208-209쪽).

- 22)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 12. 그는 이 중심지가 갖는 인간에 대한 靈威力과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신성한 山(천상과 지상이 만난다)은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다. (2) 모든 신전 또는 궁전(더욱 연장하면 모든 성스러운 도시 또는 왕의 거주지)은 신성한 산이며, 그래서 중심지가 된다. (3) 세계의 中心軸(axis mundi)이므로 신성한 도시 또는 신전은 천상, 지상, 그리고 지옥이 만나는 장소로서 간주된다.
- 23)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三榮出版社, 1984) 102쪽, 高得宗: 이조 초기 문신. 자는 자부(子傅), 본관은 濟州, 鳳智의 아들. 1414(태종 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의에 이르렀으며, 1438(세종 20년)에 種馬進貢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39에는 일본통신사가 되어 부사 尹仁甫·서장관 金蒙禮와 같이 교오포(京都)에 이르러 아시카가(足利義教)와 오오우찌(大內持世)의 書契를 가지고 돌아왔다. 1441에 다시 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는데, 함부로 李滿住와 童凡察을 처치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투옥되어 江陰縣에 유배당하였다. 후에 풀려 나와 돌아와서 同知中樞院使·漢城府判尹을 역임하고 1448년(세종 30)에 轉運使가 되어 충청·전라도의 쌀을 평안도에 漕運하였다; 高橋公明, 「高得宗 研究」(「耽羅文化」10,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275-296쪽.

키가 크고, 마음의 도량은 넓었다. 그런데 이 섬은 아직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 세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육식하고 항상 수렵을 일로 삼아서 가업(家業)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는 삼인이 한라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는데, 자주 빛이 나는 큰 함이 동해 바다로부터 떠오르고 있었다. 그 상자는 해안에 머물러서 떠가려고 하지 않자 삼인은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이물(異物)이다’ 하였다. 내려가서 상자를 열고보니, 상자 안에 계란과 같은 옥함(玉函)이 있었다. 그 봉한 것을 열었더니 비단 옷을 입은 숙녀 삼인이 나왔는데 나이는 모두 15, 16세였다. 그 모습이 속기를 벗어났고 기상이 압전했다. 각자가 외관(外觀)을 꾸미고 앉았다. 또한 그 처녀들은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종자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꺼내 금당(金塘) 연못의 언덕에 두었다. 이곳이 지금 초천관(朝天館) 하포(下浦)이다. 삼신인이 서로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말이 마치자 오견홍대(烏巾紅帶)하고 청의(青衣)를 입은 사자(使者)가 역시 함곡에 나왔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며 재배(再拜)하면서 ‘나는 본래 동해 벽랑국(碧浪國) 사신입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내가 삼녀를 낳았는데 나이가 들어 배필을 구할 수가 없다. 항상 딸을 줄 자를 찾았다. 요즈음 자소각(紫霄閣)에 올라 멀리 서쪽 바다에 떠오른 기(氣)를 보았다. 자주 빛 기운이 하늘에 닿았고 상서로운 색이 푸르렀다. 그 가운데 절악(絶岳)이 있어, 거기서 삼신인이 솟아났다. 그들이 개국(開國)하려고 하나 배필이 없었다’ 하였다. 이로 인해 신(臣)에게 명하여 삼녀(三女)를 시증하여 보냈다. 원컨대 배우자의 혼인 예의로써 맞이하여 대업(大業)을 이루소서 하였다. 그리고 나자 사신은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려서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삼인(三人)은 깨끗한 희생을 잡아 하늘에 고하고 나이 순서로 삼녀를 취하였다. 그리고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에 가서 화살을 쏘아서 땅을 정하였다. 고을나가 산 곳을 제일도(第一徒)라 하였는데, 한라산 북쪽 일도리(一徒里)였다. 양을나가 산 곳은 제이도(第二徒)라고 하였는데, 한라산 우측 남쪽에 있는 산방리(山方里)였다. 부을나가 산 곳은 제삼도(第三徒)라고 하였는데, 한라산 좌측 남쪽에 있는 토산리(土山里)였다. 이후에 산업(産業)을 이르게 오곡 종자를 심고 송아지 망아지를 쳐서 낱알이 부자가 되었다. 이후 사람 사는 지경이 되었다. 대략 구백 년 지나서 삼인은 각자 활로 돌을 쏘아서 용력(勇力)을 시험하였다. 고씨가 위였으며, 양씨는 중간이었으며, 부씨는 아래였다. 그러므로 민심이 고씨에게 돌아가자 고씨가 군장(君長)이 되었다. 양씨는 신하가 되었고, 부씨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국호를 탁모(毛牟)라고 하였으며, 이는 보리(牟穀)이 무성하였기 때문이다. [……] (경태원년[景泰元年, 세종 32년, 1450] 경오[庚午] 정월[正月] 승록대부행이부상서[崇祿大夫行吏部尙書] 한양판윤[漢陽判尹] 고득중근지[高得宗謹誌]).²⁴⁾

24)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1992) 222쪽에서 재인용. 原文: 瀛州 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 從地中湧出 于漢拏山北麓 據擴壤品字之穴 名曰慕興穴 三人之出 正當九韓時 長日

장흥고씨 영주지는 앞서 인용한 작자불명의 「영주지」에는 안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1) '조천관하포(朝天館下浦)' 라는 본도의 한 지명이 나온다. (2) '高乙那所居日第一都 漢拏北一徒里 良乙那所居日第二都 漢拏右翼之南山方里 夫乙那所居日第三都 漢拏左翼之南土山里' 이라 하여 고량부(高良夫)의 거주지가 한라산(漢拏山)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 일도리(一徒里), 우측 산방리(山方里), 그리고 남쪽 토산리(土山里)로 배정되어 있다. 이것은 태종 16년(1416) 본도가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그리고 정의현(旌義縣)으로 3분되어 축성(築城) 하였던 사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이해에 고득중은 정이오에게 부탁하여 高氏 족보인 「성주고씨가전」을 작성하였다. (3) '蓋九百之後 三人各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而國號毛牟 以其牟穀茂盛故也' 이라는 구절이 덧붙여졌다. 이것도 고득중을 위시한 고씨 가문이 본도에서 다른 가문들에 대한 그 패권적 지위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후에 작자불명 「영주지」의 저작자, 아마도 전라도 장흥 출신의 고씨 모(某)는 장흥고씨의 상술한 기사들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필사과정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전라도 쪽의 장흥고씨측에서 이러한 본도의 신선향에 관한 기사가 터무니없이 무의미했을 것이다.

이 장흥고씨 영주지가 작자불명 「영주지」보다 앞서 작성된 원본이라고 생각된다. 고득중은 이 문서 말미에 '景泰元年(世宗 32년, 1450) 庚午 正月 元日 崇祿大夫行吏部尙書 漢陽判尹 高得宗謹誌' 라고 분명히 그 저작연대를 기재하여 놓았다. 그러니까 작자불명의 「영주지」는 전라 장흥고씨 후손들이 장흥고씨 영주지를 자기들의

高乙那 次日良乙那 三日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拏山 望見紫泥封大函 自東海中浮來 欲留而不去 三相謂曰 異哉彼物也 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垢其封隱然 羅衣淑女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像竊窈 各修飾而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卽今朝天館下浦是也 三神人自賀曰是天必授我三人也 語畢鳥巾紅帶青衣使者 亦從函中而出 稽首再拜曰 我是東海上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俱壯長而求不得所耦 嘗欲遺與者 歲餘頃者 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蔥蘢 中有絕岳湧出三神人 將欲開國而無各無配匹也 因此命臣侍三女而送 願用伉儷之禮以成大業已 而忽然乘雲而去 莫知所之 三人卽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日第一都 漢拏北一徒里 良乙那所居日第二都 漢拏右翼之南山方里 夫乙那所居日第三都 漢拏左翼之南土山里 自茲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種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境 蓋九百之後 三人各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而國號毛牟 以其牟穀茂盛故也 [……] 景泰元年 庚午 正月 崇祿大夫行吏部尙書 漢陽判尹 高得宗謹誌 [景泰元年：世宗 32년, 1450년]. 필자는 「長興高氏家乘」 문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여기 현용준 교수 저서에서 이 부분을 재인용한 것이다.

가승(家乘)으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알맞게 편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선에 관한 구절을 생략하여 필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 이 필사본이 전라도 장흥 지역에 전해지다가 1915년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치된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사찬문서(私撰文書)로서 두 영주지는 (1) 태종 16년(1416) 정이오(鄭以僞)가 고득종의 부탁으로 본도의 고기류(古記類)를 보아 「성주고씨전(星主高氏家傳)」을 지었다. (2) 그 후 중종 32년(1450)년 고득종이 이를 보고 적당히 가필-윤색하여 저작한 것이 「장흥고씨가승」 영주지이다. (3) 장흥지역의 고씨들이 장흥고씨 가승을 참작하여 자기들의 필요에 알맞게 편집한 것이 연대-작자 불명한 영주지가 아닌가 한다. 이것이 지금 본도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영주지이다.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로서 세종 14년(1424)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다. 후에 이것이 단종(端宗) 2년(1454) 「세종실록지리지」와 成宗 12년(1481) 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양성지 등이 편찬한 문종 1년(1451) 「고려사」 지리지의 자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관찬문헌에 나타나는 삼신인 기사는 가장 이른 것이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이다. 또 그것은 그 서두(序頭)에 인용된 「주고기(州古記)」²⁵⁾를 참작한 것이었다.²⁶⁾ 필자는 이 「주고기」가 정이오가 「성주고씨가전」을 지으면서 본 고문서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우선 본도에는 고씨에 관한 「주고기」 등의 사찬문서가 있었고, 이것이 정이오의 「성주고씨가전」의 기본자료가 되었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성주고씨가전」이 이후 「고려사」 지리지, 장흥고씨가승, 그리고 편찬연대-작자불명의 「영주지」의 모태였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서술에 이용할 수 있는 일차적 사료는 그 연대와 저작자가 분명한 관찬문헌인 「고려사」 지리지 삼신인 기사, 그리고 사찬문서로서 고득종이 저술한 「장흥고씨가승」 영주지이다. 저작연대 불명한 영주지는 그 사료적 가치가 떨어져서 신화와 설화를 연구하는 데는 모르지만 역사적 사료로서 이용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연대-작자가 분명한 사료를 무시하고 굳이 영주지를 역사 연구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 연구가 아니라 일가문의 조상을 선양하려는 목적을 가진 가문의 족보를 편찬자가 될 것이다.

25) 州在全羅南海中 其州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26) 文暉鉉, 「耽羅國 星主王子考」, 123-125쪽.

3. 古記와 三神人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는 연대-작자 불명의 「영주지」를 역사적 사료(史料)로 이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이제부터는 「고려사」 지리지(필자 주-단순히 지리지 약칭)를 가지고 삼신인 설화를 고찰하겠다. 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삼신인의 등장 여부에 언급되고 있다.

탐라현(耽羅縣). 전라도(全羅道) 남해 바다 가운데에 있다.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태초에 사람도 생물도 없었다.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나 그 주산(主山) [한라산의] 북쪽 산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 곳이다. 첫째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둘째를 고을나(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세 사람이 인적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사냥질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자주색 봉인한 나무상자 하나가 바다를 떠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러서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또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따라 왔다. 석함(石函)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五穀)의 종자(種子)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의 사신(使臣)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3명의 딸을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악신(嶽神)이 신자(神子) 세 사람을 내려보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配匹)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3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 하였나이다. 부디 배필(配匹)로 삼아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소서.’ 라고 하고는 사자(使者)는 문득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순으로 나누어 장가가서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제1도(都)라 하고 고을나(高乙那)가 사는 곳을 제2도(都)라 하고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제3도(都)라 하여 처음으로 오곡(五穀)을 씨뿌리고 또한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로 살림이 풍부하여 갔다. 15대손(孫)인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에 이르러 곤제(昆弟)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때는 신라의 번성하던 시기였다. 이때에 객성(客星)이 남쪽 방향에 나타나므로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이국인(異國人)이 내조(來朝)할 징조입니다’ 라고 하였다. 드디어 신라에 들어오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첫째를 성주(星主)[그 성상(星象)을 음직인 때문에]라 칭하고 둘째를 왕자(王子)[왕이 고청(高淸)으로 하여금 가량이 밀로 지나게 하여 사랑하기를 친자식과 같이 한 까닭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라 칭하고 막내를 도내(都內)라 하였으며 읍호(邑號)를 탐라(耽羅)라 하니 그것은 올 때 처음 탐진(耽津)에 상륙하였기에 때문이라 각각 보개(寶蓋)와 의대(衣帶)를 주어 보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공손히 신라를 섬기니 고을나(高乙那)로 성주(星主)를 삼고 양을나(良乙那)로 왕자(王子)를 삼고 부을나(夫乙那)로 도상(徒上)을 삼았고 뒤에 또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²⁷⁾

삼신인은 한라산 북쪽 산기슭 땅 구멍에서 솟아났고, 또 세 처녀가 바닷가에서 흘러온 돌 상자에서 나왔다. 이들은 서로 짝지어 혼인하였고, 샘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 나누어 살게 되었다. 그들이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라고 불려졌고, 그 사는 곳들은 각각 제1도, 제2도, 제3도라고 하였다. 15대 후손이 되는 고후, 고청 그리고 성명 불명의 막내 형제가 한창 번성을 구가하던 신라에 내조하였다. 신라왕은 그때 객성(客星)이 그들의 내방을 미리 예시했기 때문에 3형제를 차례대로 성주, 왕자, 도내라 하였다. 이것이 삼신신화 내용의 요점이다.

우선 민속학적 입장에서 삼신인에 대하여 현용준 교수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리지의 신화가 그 삽화나 소화(素話)들을 현재 구전하는 제주도의 설화와 비교해 보면 무속(巫俗)의 당신(堂神) 본풀이와 극히 비슷하고 하였다. 그래서 삼성신화(三姓神話)는 본래 삼성씨족(三姓氏族)의 조상 본풀이이요, 삼성씨족이 숭상하던 당본풀이적 성격을 가진 신화였다고 지적한다.²⁸⁾

이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는 선사시대부터 전해내려 온 샤먼들의 노래들을 고씨 성주들이 어느 시기에 자기들의 조상 이야기로 대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서 인용한 임박의 선무공작은 공민왕 16년(1367)의 일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공민왕대 이전에 이미 고씨가 신인의 후손이라는 고씨-신인설이 본도에 유포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간단한 씨족(氏族)이나 가첩(家牒)의 형태로 자기 조상들의 내력을 작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다음과 같은 역사 연구의 성과에 토대한 것이다.

이수건(李樹健)은 고려시대의 성씨관계자료에 대하여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고려시대에는 문종조(文宗朝) 이래 ‘씨족(氏族)’·가보(家譜)·보첩(譜牒)·가첩(家牒)·세보(世譜)·족보(族譜) 등의 용어는 있어왔지만, 이들은 모두 15세기부터 나

27)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 從地從出[其主山北麓, 有穴日毛興, 是其地也] 長日良乙那 次日高乙那 三日夫乙那 三人 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 見紫泥封藏木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 云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 忽乘雲而去 三人 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日第一都 高乙那所居 日第二都 夫乙那所居 日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高濤 昆弟三人 造船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 客星 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 嘉之 稱長子 日星主[以其動星象也] 二子 日王子[王, 令清出股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 日都內 邑號 日耽羅 蓋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賣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2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180-226쪽.

타나는 조선시대의 '족보(族譜)'와는 차원이 달랐다. 삼한공신(三韓功臣)의 등제(登第)와 군현토성(郡縣土姓)의 분정(分定) 및 관제(官制)·과거제(科擧制)의 정비에 따라 중앙에서는 당대(唐代)의 씨족지(氏族志)·족망표(姓望表)와 같은 군현성씨록(郡縣姓氏錄), 공신(功臣)들에 주었던 '녹권(錄券)' 등이 비치되어 임관(任官)과 전주(銓注)에 활용했던 것이다.²⁹⁾ 그리고 이런 성씨관계자료는 대개 고문서(古文書)의 형태로 전래되었다. 거기에는 각 가문이 자기 조상에 대해 그럴듯한 해석을 가하여 개성(改姓)·개명(改名) 사실을 부회했던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³⁰⁾

이러한 고려시대의 성씨관계자료들에 비추어 보아, 필자는 고려사 지리지의 '古記'란 정종대(靖宗代) 고유(高維)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서 조정에 제출한 가보(家譜)이거나 가첩(家牒)의 종류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려시기 과거에 응시하거나 관직에 취임하려면 해당자는 가계기록(家系記錄)인 족보를 제출하여 그 가부를 심사 받은 다음에야 급제나 임관이 가능하였다. 과거절차법에 따르면 거자(擧子)는 시험이 시행되기 일정한 기간 이전에 '행권가장(行卷家狀)'을 공원(貢院)에 제출하게 되어있었는데, 거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본관(本貫)·사조(四祖) 및 응시자격·생년(生年)·4조의 관직 등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당인의 가장(家狀: 조상의 행적 기록)의 허물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과거시험 그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³¹⁾ 그래서 고려시대에 과거를 응시하는 가문들은 소규모일망정 족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³²⁾ 그러나 아직 고유가 활동하던 하던 문종대에는 아직 종합적인 족보는 없었다. 조선왕조에 와서 유행된 종합보(綜合譜)와 같은 형태를 띤 족보는 14세기경, 곧 고려 후기에 비롯되었다고 하겠다.³³⁾

그렇다면 고유가 남성시(南省試), 즉 국자감시(國子監試)에 응시할 때(정종 11년)

29)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23쪽.

30) 위의 책, 25쪽.

31) 박용운, 『高麗時代史』(일지사, 1993), 70쪽.

32) 崔在錫, 『高麗時代의 親族組織』(『歷史學報』 94·95 합집, 1985), 202-204쪽. 여기서 墓誌銘에 의하면 族譜는 家譜, 家牒, 世譜, 譜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33)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일조각, 2004) 72쪽: 적어도 고려 후기 우왕 8년(1382) 이전에 만들어진 『鄭氏家傳』에는 배우자의 아버지와 함께 본손과 외손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또 후대 청주 정씨 족보의 편찬에서 창시보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초기 족보의 특징으로 열거되는 주요한 두 개의 사항이 이 고려 후기 서원 정씨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에서 족보의 출현은 고려 후기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나 그 후에 벼슬하려고 하였을 때, 그의 가계를 적은 행권가장을 공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문종 11년(1057) 고유가 우습유를 임명 받으려고 그 가문의 행권가장을 중서성(中書省)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 행권가장을 검사한 중서성이 그를 '탐라계출(耽羅系出)'이라 하여 그 임명을 반대한 사건이 있었다.³⁴⁾

위의 사실들에 의거하여 필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본다. 11세기 중반 고유의 중앙관직 진출을 계기로 하여 그와 족적 연관이 있는 탐라 성주층은 관직 임명의 필수 조건인 족보와 성씨를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규격대로 4조와 그 관직과 행적들을 기록한 행권가장과 같은 간단한 족보를 갖추었을 것이다. 그 후에 본도 고씨들은 유일하게 중앙관직을 역임한 고유·고조기와 족보상 연결을 강조하였고, 그 수단으로써 당시 본도의 무가인 당신(堂神) 본풀이를 약간 변형하여 '신인(神人)' 후예됨을 그 행권가장의 서두에 내세웠지 않았는가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인의 후예로서 역대 고려왕조의 충성스런 명문 후손임을 자처하였다고 생각된다.

상술한 것은 물론 필자의 추정이므로 그 실상에 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필자의 상상만이 아님이 것은 조선 초 성주 고득중(高得宗)의 부탁으로 정이오(鄭以吾)가 지은 「성주고씨가전」(태종 18년경 저작, 1418) 말미에 어느 정도 드러난다.

탐라 땅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산이 뛰어나고 기이하니 한라(漢拏)라고 하였다. 완연히 구름바다 아득한 위에 있으니 신령의 화기(和氣)가 내려오다가 산의 북쪽 모흥혈(毛興穴)에서 신인(神人)이 되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솟아나니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였다. 고을나는 고씨의 시조이었다. [……] 임금이 선비를 뽑자 고득중은 을과(乙科) 제13인으로 급제하였다. 다음해 성주직을 계승했고 여러 번 영전하여 사헌감찰(司憲監察)·형조도관좌랑예조좌랑(刑曹都官佐郎禮曹佐郎) 되었으며, 무술년(戊戌年, 태종 18년, 1418) 가을 7월에 사명을 받아 고향에 돌아오자 士林들은 이를 영예롭게 생각했다. 고득중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종족은 처음에 모흥(毛興) 땅 구멍에서 기틀을 세웠다(吾宗肇基毛興之穴). 신라이래 지금 왕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성주들은 그 직을 이었고 왕가(王家)에 복종하기를 두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적(事迹)을 문자에 기록하여 두지 않

34) 「고려사」 문종 11년 정월 기축 : 고유로 우습유를 삼으려 하니 중서성이 아뢰기를, “고유는 耽羅系出이오니 諫省에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재질을 아끼신다면 청컨대 다른 관직을 除授하고서”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己丑 以高維 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

으면 없어질까 보아 두렵고, 또한 후손에게 보일 것이 없어 두렵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온 족보가 온존하지 않으니 청을 받아 대강 마련한다.”³⁵⁾

태종 18년 귀향(歸鄉)한 고득중은 당대 문명이 높은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이오(鄭以吾)에게 족보를 지어달라고 하였다. 이 청탁을 받아들인 정이오는 대대로 전해진 족보(세차보첩[世次譜牒])가 온전하지 못하니 대충 적어놓는다고 하면서 저작한 것이 위의 「성주고씨가전」이었다. 이 점으로 보아, 태종 18년 시점에서 성주고씨 일가에는 「고려사」 지리지 이상 자세한 집안 족보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자는 「성주고씨가전」이 후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의 원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³⁵⁾

또한 필자는 「고려사」 지리지에 반영된 기사들을 곧 바로 비판 없이 역사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우선 고후 등이 신라에 갔다는 기사가 너무 황당하다. 신인(神人)부터 15대 후손인 고후·고청 등 3형제가 바다를 건너 耽津에 이르렀다. 그때가 ‘신라성시(新羅盛時)’라고 하였는데 이는 통일신라 시기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사기」에도 ‘탐라국(耽羅國主)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항복하여 왔다. 탐라는 무덕(武德) 이래 백제에 신속하여 좌평을 관호로 삼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文武王 2년, 662,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自武德以來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라고 하고 있다. 이때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잔여 세력의 일부가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을 즈음이다. 이런 역사적 기사에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있다. 곧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속국이 되었다고 해서 탐라국의 정체성을 잃고 신라의 군현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물을 바치고 복종의례를 하는 소국의 형식적인 외교의식(外交儀式)에 불과하였다.³⁶⁾ 이렇게 보면 탐라국 사절의 신라 파견은 나당 연합군이 백제 수도를 함락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왜군과 연합한 백제 부흥군이 그 세력을 떨치던 복잡한 국제적 상황에서 그 정세를 파악하여 탐라의 향후 대외정책을

35) 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秀曰漢拏 宛在雲海渺茫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毛興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而高乙那即高氏鼻祖也(中略) 上臨軒策士 得宗對策中乙科十三人 明年襲星主 累轉爲司憲監察·刑曹都官佐郎·禮曹佐郎 戊戌秋七月 奉使歸故鄉士林榮之 得宗謂以吾曰 吾宗肇基毛興之穴 自新羅式至于今 世襲星主 服事王家 赤心無已 而仰陳迹 非托之文字 懼其湮沒 無以示來裔 然世次譜牒不全 姑以大槩爲請(後略).

36) 진영일, 「삼국지·삼국사기의 州胡·耽羅國 研究」(『인문학연구』 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2) 178-180쪽.

결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차였을 것이다.

탐라가 사료상으로 신라와 관계를 맺는 시점, 문무왕 2년(662)을 기점으로 하여 15대, 즉 450년(15×30년, 1세대 30)을 소급하면 내해왕(奈解王) 17년(212) 시점에 해당된다. 지리지에 의할 것 같으면, 내해왕대(196-230)에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3성에 의하여 탐라국이 개국(開國)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계림(鷄林)'으로 불렸고 아직 약체여서 주변지역들의 여러 곳에서 침략을 받고 있었다. 이런 신라가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4세기 후반 내물왕(356-402)이었다.³⁷⁾ 그리고 최근의 신라 팽창에 관한 연구 성과에서도 진한소국들을 정벌이나 통합한 시기는 대략 4세기 중엽(350-360년대 초)으로 추정되는 첨해이사금 시라고 한다.³⁸⁾ 이렇게 주위 여러 나라와 정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신라에 탐라가 바다 건너서, 그리고 다시 적대적인 진변소국(辰弁小國)들의 영역을 지나서 신라에 조공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고려사」 지리지의 이 부분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탐라 삼성(三姓)을 비롯하여 태고부터 우리나라에는 성씨를 칭하였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 탐라국의 개국하였던 시점인 3세기 초에는 신라왕과 신하들조차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신라 '성시(盛時)'를 문무왕 이후인 신라 말기로 잡아서 연대를 1~3세기 늦춰봐도 사정은 마찬가지가 된다. 왜냐하면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졌다고 추정되는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에서도 왕을 비롯한 신하들도 姓氏가 없었기 때문이다.³⁹⁾ 예를 들어 4개의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의 하나인 「창녕비(昌寧碑)」(진흥왕 22년, 561)에 나온 왕의 수행 관원들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3〉 신라 창녕비 수행관원 인명

	職 名	部 名	人 名	官 等 名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沙喙	△△△	沙尺干
	漢城軍主	喙	杯夫智	沙尺干
	碑利城軍主	喙	福等智	沙尺干
	甘文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37) 문경현, 「耽羅國 星主·王子考」 131쪽.

38) 강중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47-148쪽.

39) 崔光植, 「蔚珍鳳坪新羅碑의 釋文과 內容」 「韓國古代史研究」,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1989, 97쪽. 예를 들면 官名·人名的 순으로 배열하면 寐錦王·牟卽智, 葛文王·徒夫智, 干智·巫夫智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성군주 배부지란 사람의 기명(記名)은 직명(職名): 한성군주(漢城軍主)+부명(部名): 웨(喙)+인명(人名): 배부지(杯夫智)+관등명(官等名): 사척간(沙尺干)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성씨가 보이지 않는다. 또 <표 3>에 제시된 4명의 인물뿐 아니라 창녕비(昌寧碑)에 등장하는 전체인원인 48명을 포함하여 4개의 진흥왕의 순수비들에 나타난 총계 80여 명 사람들 중에 어느 그 누구도 칭성(稱姓)한 자가 없다.⁴⁰⁾ 이런 사실이 말하는 것은 6세기 중엽 신라 지배층은 직명, 부명, 관등명, 이름만 가지고도 자기의 신분과 관직을 표시하는 충분하여서 성씨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국내 비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서(史書)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보인다. 그 책에 의하면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들 45명이 거의 성씨를 칭성하고 있지 않다(推古紀, 592-628~天武紀, 673-686). 칭성자 중에 그 최초의 인물은 대화(大化 3년, 647; 신라 진덕왕대, 647-654) 내조한 김춘추(金春秋)이었다. 그리고 진흥왕(眞興王, 540-576)이 '신라왕김진흥(新羅國王金眞興)'(『北齊書』, 武成本紀)이라 하여 역사상 최초로 김씨성(金氏姓)을 칭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칭성은 중국과의 대외적으로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한다. 이들 칭성자는 신라 귀족이거나 준귀족들이었다. 그런데 일반서민층은 거의 무성(無姓)이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 표착한 신라인들은 「신라인신파고지(新羅人辛波古知)」(『日本後記』 弘仁 5년, 814)처럼 성이 없었다.⁴¹⁾ 따라서 신라는 7세기에 들어서 왕을 비롯하여 귀족층이 김씨 성을 칭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은 무성이었다고 하겠다.

김씨세계(金氏世系)의 실태가 이러하므로, 신라가 왕조의 창립 때부터 김·박·석씨(金·朴·昔氏)가 서로 교대하여 왕위에 올랐다는 이른 바, 왕위의 삼성교립(三姓交立)은 주장하기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金氏는 6세기 경부터 시작되었으나, 박·석씨(朴·昔氏)의 兩姓은 전설이라든지 고전을 제외하면 김씨성(金氏姓)을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용례를 볼 수 없다. 朴姓이 처음 보이는 것은 668년(박경한[朴京漢]·박도유[朴都儒],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675년(박무마[朴武摩],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이고, 통일기를 넘어 소급되지 않는다. 석성(昔姓)은 727년(석양절[昔楊節], 『속일본기(續日本記)』)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라 상고기(上古期)의 삼성은 확인되지 않는다.⁴²⁾ 필자의 생각에 이런 지적은

40) 盧鏞淵,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일조각, 1996), 32-33쪽. 예를 보면 人名이 未漢, 屈珍智, 都設智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41) 三品彰英, 「骨品制社會」(『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63) 181-184쪽.

42) 武田幸男, 「朝鮮の姓氏」(『日本古代史講座: 東アジ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 10, 學生社版,

우리가 성씨에 관한 상식하고는 매우 다르지만 그 연대가 비교적 확정되고 내용이 믿을 수 있는 정사(正史)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진흥왕이래 신라 왕족들은 김씨(金氏)라고 칭성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에서는 신라 말에 이르러는 외래성씨(外來姓氏)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 성씨사용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9세기 중엽에 장보고(張保臯)와 그 주변 인물의 칭성이 확인되고, 나말여초(羅末麗初)에 활동했던 지방출신 선사(禪師)들이 모두 유성자(有姓者)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사회에서도 성씨사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와 반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사례들도 보인다. 사료상으로 지방사회에서는 신라 말까지도 지방 세력가들조차 성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여러 비문을 검토해 보면, 신라 말 지방세력층 대부분이 무성인명(無姓人名)으로 나타나, 당시 성씨가 그들 사회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만약 성씨의 보유가 그들에게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 중앙의 통제력이 해체되는 신라 말의 몇 시기에 광범한 칭성(稱姓)과, 성씨의 적극적인 연칭(連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방사회 세력층조차 성씨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성씨의 그 사회적 의미가 미약했음은 나말여초에 새롭게 지방의 유력자로 등장한 호족(豪族)들이 무성명(無姓名)이었다는 사례들을 보아도 유추할 수 있다.⁴³⁾

위와 같은 사실들을 참조하면, 지리지 기사대로 탐라국이 개국하였을 당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는 3성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을나(乙那)’ 등은 여진족의 인명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며, ‘양을나(良乙那)’ 라든지 ‘부을나(夫乙那)’ 등이 성씨라고 확실히 단언할 수도 없다. 이런 명칭들은 여진족의 추장명(酋長名)과 관련이 있었다. 여기에 성주왕자의 이름과 여진족 추장의 이름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성주충의 인명이 여진족하고 비슷하다. 이중에도 ‘加利’는 양자가 同名이며,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의 공통된 ‘을나(乙那)’ 명칭은 여진족 추장명인 ‘오을나(吾乙那)·오을나(烏乙那)’ 의 그것하고 같다. 삼신설화의 三神名과 여진족의 추장명(酋長名)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문종대~인종대에 지속된 고려의 대외정책, 즉 기미(羅縻)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1984) 61-63쪽.

43)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서울대학교 대학원, 國史學科, 석사학위논문, 1996) 22-25쪽.

〈표 4〉 탐라·여진족의 추장명 비교

耽羅 星主·王子의 名	女眞諸族의 名
未老	阿老, 冬老, 開老, 古豆老
豆良, 豆羅	豆門, 豆也弗, 沙羅, 所羅, 伊羅
殊雲那	吾乙那, 烏乙那, 烏於那, 要於那
古物	吉豆, 古舍, 古守, 古於夫
孤烏弩	烏陀, 烏於乃, 烏頭朱
加也仍	加伊, 加乙乙弗, 也沙, 豆也弗, 仍于
加利	加利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⁴⁴⁾

적어도 고려 초 이전에 탐라 세력층이 성씨가 없었다는 사실은 신라 문무왕 2년(662)~일본 지통(持統) 2년(668)간에 13회 탐라 성주와 왕자라는 명칭을 띤 사절이 신라와 일본에 파견되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칭성한 자가 없었다.

〈표 5〉 탐라 사신의 신라·일본 파견

年代(年-月), 西紀	爵 位	名	관 계 사 항	비 고
文武 2-2, 662	耽羅國主佐平	徒冬音律(津)	來降	三國史記 新羅本紀
龍朔元年, 661	儋羅王	儒李都羅	遣使入朝	冊府元龜
齊明 7-5, 661	耽羅王子	阿波伎	貢獻	日本書紀
天智 5-정월, 666	耽羅王子	姑如	貢獻	“
天智 6-7, 667	耽羅佐平	椽磨	貢獻	“
天智 8-3, 669	耽羅王子	久麻伎	貢獻	“
天武 2-윤6, 672	耽羅王子	久麻藝, 都羅	朝貢	“
		姑如		
天武 4-8, 675	耽羅王	姑如	泊筑紫	“
天武 4-9, 675	耽羅王子	久麻伎	到難波	“
天武 6-8, 677	耽羅王子	都羅	朝貢	“
持統 2-8, 688	耽羅佐平	加羅	來獻方物	“

〈표 5〉에서 보듯이 7세기의 본도의 성주층은 성씨를 칭하지 않고 국주, 왕, 왕자,

44) 진영일,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인문학연구』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2), 102-104쪽.

좌평이란 직명과 유리도라, 아파기, 고여, 연마, 구마기, 구마예, 도라, 가라라는 이름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도의 성주층은 고려 현종 이전에는 성씨를 갖지 않았다고 하겠다.

고려시기 탐라 성주층이 분명히 고씨성(高氏姓)을 칭하기 시작한 것은 <표-6>에서 보듯이 현종 15년(1024) 고몰(高沒)이다. 이후 12세기 문종대에 들어가 고한(高漢), 고협(高叶), 고일(高逸), 고복(高福) 등이 등장하여 고씨는 탐라 성주층의 성씨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현종 이전에는 고씨성(高氏姓) 운운할 수가 없으므로 「고려사」지리지에 나오는 고후·고청의 기사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대 성주 고씨 일가가 가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후대에 윤색한 것 같다.

그리고 현종부터 탐라 성주층이 고씨성을 칭하게 되었고, 문종에 이르러 고려왕정은 여진족에 대한 기미정책(羈縻政策)의 일환으로 본도 세력가들에게 무산계(武散階)⁴⁵⁾라는 관작을 주고, 그 세력층에게 高氏라고 사성(賜姓)하게 되지 않았나 한다. 이런 무산계의 수작에는 반드시 要式行爲로서 반드시 성씨를 동반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종서(李鍾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향리직(鄕吏職)은 성씨(姓氏)가 전제되지 않는 임명형식을 취했던 반면에 무산계는 성씨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에 의거해 수여되는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무산계를 소지한 향리(鄕吏)와 그렇지 못한 향리의 지위의 차이도 성씨의 기재조항으로 구별되었던 결과, 성씨는 무산계와 연관되어 권위(權威)의 일부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의 제도적 요구가 지방사회의 성씨 인식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는 무산계를 처음 실시한 성종 14년(955)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터인데 무산계를 띤 향리는 현종대(1009-1031)에 처음 확인되며 또 이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여되지 않았을까 한다.⁴⁶⁾ 이런 점을 참조하면 본도 탐라추장(耽羅酋長) 주물(周物)과 그의 아들이 현종 15년(1024)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정3품)이란 무산계 작위를 받았다. 특히 주물의 아들이 고몰(高沒)이라 불

45) 무산계는 29단계로 구성되었다: 成宗十四年 定武散階 凡二十有九 從一品曰驃騎大將軍 正二品曰輔國大將軍 從二品曰鎮國大將軍 正三品曰冠軍大將軍 從三品曰雲麾大將軍 正四品上曰中武將軍 下曰將武將軍 從四品上曰宣威將軍 下曰明威將軍 正五品上曰定遠將軍 下曰寧遠將軍 從五品上曰遊騎將軍 下曰游擊將軍 正六品曰耀武校尉 下曰耀武副尉 從六品上曰振威校尉 下曰振威副尉 正七品上曰致果校尉 下曰致果副尉 從七品上曰翊威校尉 下曰翊威副尉 正八品上曰宣折校尉 下曰宣折副尉 從八品上曰禦侮校尉 下曰禦侮副尉 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 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高麗史』 권 77, 百官志 2, 武散階條).

46) 이종서, 「나말여초 성씨 사용의 확대와 그 배경」, 74쪽.

러지면서 高氏의 칭성(稱姓)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⁴⁷⁾

본도 성주들에 수여된 무산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고려시기 무산계는 문산계(文散階)에 상대되는 위계제도였다. 이것은 문산계와 마찬가지로 성종 14년(995)에 설정되었고, 그 수직 대상은 향리와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령의 병사(兵士)·공장(工匠)과 악인(樂人)이었다. 이들은 문산계를 띠고 있는 문무관료층과는 구별되는 계층으로, 무산계 설정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영예적 칭호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⁴⁸⁾ 고려가 탐라 성주층에게 이런 무산계 수여는 그들을 고려의 지배질서 속에 편입하여 희유-통제하려는 고도의 외교 정책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려는 본도성주에게는 장군급(將軍級), 王子나 도상(徒上)에게는 위관급(尉官級)을 수직(授職)하였다. 고려와 탐라의 상호관계는 무산계 수여를 통해 상호 군사적 상하관계로써 설정되었다는 데에 주목된다. 무산계를 그 관작등급 순서로 수직자(受職者)들과 함께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耽羅 武散階·受爵者

年代(年-月), 西紀	武散階	品階(1-29등급)	耽羅爵位	受爵者
현종 15-7, 1024	雲麾將軍	從3品(5)	耽羅酋長	周物
上同	雲麾將軍	종3품(5)	周物子	高沒
현종 20-6, 1029	游擊將軍	종5품下(12)	耽羅世子	孤烏弩
문종 3-11, 1049	振威校尉	종6품上(16)	毛羅	夫乙仍
문종 7-2, 1053	中虎(武)將軍	正4品(6)	耽羅國王子	殊雲那
上同	陪戎校尉	종9품하(29)	殊雲那子	古物
문종 17-3, 1063	明威將軍	종4품하(9)	耽羅國新星主	豆良
문종 22-3, 1068	游擊將軍	종5품하(12)	耽羅星主	加也仍
선종 3-2, 1086	游擊將軍	종5품하(12)	毛羅	加於乃
선종 7-2, 1097	游擊將軍	종5품하(12)	加良仍 母弟	高福
선종 9-2, 1092	定遠將軍	정5품상(10)	耽羅星主	懿仁
숙종 6-10, 1101	游擊將軍	종5품하(12)	耽羅新星主	具代

47) 진영일,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인문학』 10, 제대 탐라문화연구소, 2003, 12), 120-121쪽.

48) 旗田 巍, 「高麗の武散階」(『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394-395쪽; 朴龍雲, 「관직과 관계」(『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136쪽.

〈표 6〉을 보면, 탐라 성주층은 고려 초-중기에는 상당히 우대되고 있었다. 3품직 운위대장군(雲麾大將軍), 4품직의 중무장군(中武將軍), 명위장군(明威將軍), 5품직 정원장군(定遠將軍)을 수여 받다가 종5품하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정착된 듯하다. 그리고 王子 또는 王子의 자에게는 종6품상 진위교위(振威校尉)에서 종9품하 배용교위(陪戎副尉) 등이 내려지고 있었다. 숙종6년 배용교위 구대(具代)가 성주가 되자 유격장군으로 승격되는 것을 보면, 위관급(尉官級) 무산계는 성주의 후계자인 왕자들에게 수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그들이 성주직을 계승하면 유격장군으로 승진되어 그 위신을 높였던 같다. 그리고 이런 무산계를 소지한 성주층이 현령관이 부임한 의종대 이후부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본도가 고려의 군현제인 탐라현이 된 이후부터 본도 성주층을 독자적인 소국 제후로서 회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성주층이 무산계를 소지한 것 자체가 본도는 고려 군현제에 편입된 지방이 아니었다는 방증이 된다.⁴⁹⁾

이렇게 현종 15년(1054)에 무산계를 받기 위하여 고씨 성을 칭한 고몰(高沒) 때부터였다. 특히 문종대((1046-1083)에 고한(高漢, 문종 9년), 고헌(高叶, 문종 16년), 고일(高逸, 문종 16년) 등이 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씨는 성주층의 성씨가 되었다. 드디어 고씨 출신 고유는 문종 24년(1070) 동북로병마부사(東北路兵馬副使)란 고위관직에 임명되어 도내의 명문가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주층이 고씨 성씨관념을 문종대에 갖게 된 시기는 고려 왕조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이종서씨는 고려 묘지명이 문종대에 6사례가 확인되어 고려기의 성씨관념을 문종대의 그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⁵⁰⁾

원래 성씨를 칭하지 않았던 탐라 성주층은 고려왕조의 무산계 수작에 따른 要式행위로써 고씨성을 칭했으며, 이로써 도민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를 높였다고 하겠다. 또한 성주들은 본도에 전승되는 삼신인 설화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신성한 神人출신임을 강조하여 더욱 가문의 신비성을 과시하였다.⁵¹⁾ 그리고 이런 고씨의 전승이 「고려사」 지리지 등에 나타난 '古記' 등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사」 지

49) 진영일, 「고려 숙종 10년 耽羅郡 설치 고찰」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2) 53-63쪽.

50) 이종서, 「나말여초 성씨 사용의 확대와 그 배경」, 51쪽. 인종대까지 묘지명은 각각 광종 1개, 현종 1개, 정종 1개, 문종 6개, 숙종 3개, 예종 9개, 인종 19개가 된다.

51) Sauri Honko, 'The Problem of Defining Myth', Sacred Narrative: Readings in the Theory of Myth, Edited by Alan Dund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46-48: 신화에 관한 현대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1) 認識的 範疇들의 근원으로서 신화, 2) 상징적 표현의 형태로서 신화, 3) 無意識의 投射로서 신화, 4) 생활에 대한 인간의

리지 편찬자도 신인의 화소(話素)를 채택하면서 탐라 古記에 의한다고(其古記云)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이것은 지리지 편찬자가 이 신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고기'의 기재된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놓은 것이다.

지리지의 삼신인이 신라에 조공하였다는 3세기 초반은 후반 경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3세기 후반경, 陳壽가 편찬한 중국 正史)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본도는 주호(州胡) 시대였지 탐라국 시대가 아니었다.⁵²⁾ 여기에서 '星主'란 명칭을 처음 띠고 처음 등장한 인물은 고려 정종 9년(1043) 기사에 나오는 '탁라성주(毛羅星主)' 유격장군 가리(加利)였다. 따라서 삼신인 15대 후손이라고 하는 고후가 신라에서 받았다는 성주(星主)란 명칭은 정종 이전에는 국내외의 史書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종 9년 전에는 주로 본도 세력층은 주로 '탐라왕·탐라 국주(國主)' 등으로 불려졌다. 이런 점을 보면, '古記云'으로 시작하는 삼신인 설화 부분은 위와 같은 역사적 기초 사실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엮어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지리지를 '古記云'하여 시작된 삼신인과 고후·고청에 관한 부분[신화적 부분]과 그 후 후속되는 역사적 사건 기록 부분[역사적 부분]으로 양분하여 지리지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⁵³⁾ 역사적 부분에서 탐라는 백제 문주왕(文周王)에게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으며(문주왕 2년, 476). 그 후 20여 년 후에 백제 동성왕(東城王)은 탐라가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정벌하려 무진주(武珍州)까지 행차하였다가 탐라가 사죄를 하자 그만두었다 한다(동성왕 20년, 498). 이렇게 탐라국은 최초부터 백제와 관계가 깊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삼신인 부분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무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후 등의 3형제가 배를 만들어

적용에서 통합적 요소로서 신화, 5) 행동의 특권(charter of behaviour)으로서 신화, 6) 사회적 제도들의 정당화 방법으로서 신화, 7) 사회적 관련성의 표지로서 신화, 8) 문화, 사회적 구조 등의 反射物로서 신화, 9)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서 신화, 10) 종교적 의사소통(communiation)으로서 신화, 11) 종교적 장르(genre)로서 신화, 12) 구조를 위한 매개수단으로써 신화이다.

52) 진영일, 「삼국지·삼국사기의 州胡·탐라국 연구」(『인문학연구』 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2), 151-161쪽: 여기서 필자는 州胡를 둘러싼 문제들, 즉 魏志 東夷傳과 後漢書 기사의 비교, 州胡에 등재된 中韓의 위치, 州胡의 대외교역 등을 고찰하였다.

53) 「고려사」 지리지 耽羅縣條: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從地從出 [……] 至十五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船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 百濟文周王二年拜耽羅國使者恩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百濟既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香律來降. 지리지 탐라현조는 이렇게 古記云 부분과 역사적 부분으로 양분될 수 있다. 삼신인 부분은 古記를 보아서 작성된 것이고 역사부분은 당시 고려왕실에 소장된 역사서들을 참조하여 서술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타고 탐진에 건너갔는데, 이때가 바로 '신라성시(新羅盛時)' 였다고 한다. 그 다음 客星이 나타나고 신라왕이 삼형제에게 각각 성주, 왕자, 都內라는 작위를 내리고 있다.

필자는 신화적 부문이 탐라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두 부문이 그 출처가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화적 부문은 본도에서 전승된 삼신인에 관한 설화를 문자화한 古記를 토대로 하여 지리지에 수록된 것 같다. 역사적 부문은 조선초기까지도 존재했던 전시대에 관한 역사기록들을 참작하여 고려사 지리지의 편자인 양성지가 여기에 기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신화적 부문의 토대가 된 古記는 역사적 시간에 대해 무감각하여 탐라국이 백제와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신라에 관한 항목도 그 시간적 구체성이 없고 막연히 '신라성시(新羅盛時)' 라든지 '신라왕(新羅王)' 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古記 작성자는 한반도에 백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한반도에는 고려왕조 이전에 신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어렵뜻한 역사적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가 한다. 물론 그는 개별적인 신라왕과 그 재위연대 등에서는 전혀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화나 설화는 그 역사적 시간성을 무시하고 신인들과 그 사건들의 원초성(原初性)을 강조하는 것이 그 본질적 특색이다.

다음으로는 필자는 古記 등이 작성된 시기를 고려 文宗代(1046-1083) 본도 출신 高維(高維)가 중앙관직에 취임한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고려사」 열전은 그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가) 문종 11- 1-기축(1057) : 高維(高維)로 우습유(右拾遺)를 삼으려 하니 중서성(中書省)이 아뢰기를, “高維(高維)는 탐라(耽羅)의 계출(系出)이오니 간성(諫省)에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재질(才質)을 아끼신다면 청컨대 다른 관직을 제수(除授)하소서”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己丑, 以高維, 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
- (나) 문종 24-4-임신(1070) : 병부 시랑(兵部侍郎)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문정(文正)으로 서북로 병마 부사(西北路兵馬副使)를 삼고 비서 소감(秘書少監) 高維(高維)로 동북로 병마 부사(東北路兵馬副使)를 삼았다(壬申, 以兵部侍郎左諫議大夫文正, 爲西北路兵馬副使, 秘書少監高維, 爲東北路兵馬副使).
- (다) 문종-25-10(1071) : 비서소감(秘書少監) 高維가 75인을 뽑았다(秘書少監高維取七十五人(「고려사」 選舉志 2, 凡國子監試之額).

(가) 중서성(中書省)은 高維가 우습유(右拾遺, 從 6品)가 되려고 하니 이를 탐라계

출(耽羅系出)이며, 그래서 간성(諫省)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서성은 고유에게 다른 벼슬을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나) 고유는 문종 24년 비서소감(秘書少監)이 되고 있었다. 비서소감이란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을 맡아 본 관청(掌經籍祝疏), 즉 비서성(秘書省)의 종4품 관직이었다. 같은 해에 그는 동북로병마부사(東北路兵馬副使)에 임명되었다. 이는 도병마사의 속관으로 임기 6개월인 정4품 벼슬이었으며, 변경 군사지대 북계(北界)의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우복야(右僕射, 정2품)가 되어 재신반열(宰臣班列)에 올랐다. 이 우복야는 '백관을 총괄 지휘한다'(摠領百官尙書都省)는尙書都省의宰臣職이었으며, 실직의 재상들 15명중의 하나였다(현재 장관급). 물론 최고관직으로서 수상은 종1품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다.⁵⁴⁾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문종 11년(1057) 왕은 고유를 우습유로 임명하려고 하였다. 이때 관직 취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조상의 내력을 적은 행권가장(行卷家狀)을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대간(臺諫)이 이를 심사하는 서경(署經)을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하였다. 중서성은 고유가 변방 출신이라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서성은 고려관료들의 중추인 간성(諫省 : 諫官과 臺諫으로 구성되는 권력의 핵심 관직)의 취임을 반대하였지 그의 관직 취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고유는 비서소감(秘書少監), 동북로병마부사(東北路兵馬副使)를 거쳐 우복야(右僕射)까지 출세하고 있다. 하여튼 이때 고유는 삼신인 설화를 서두로 하는 간단한 가첩(家牒) 양식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나 한다. 이것이 후대에 전래되다가 조선조에 들어서 고려사 지리지의 작성한 양성지가 이를 참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그 밝힌 대로 지리지의 서두에 있는 바로 '其古記云'라는 단서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필자는 우선 지리지의 삼신인설화가 문자화되어 기록된 시기를 문종 11년(1057) 고유의 우습유 임명을 위해 자기 가족의 가첩과 같은 부류의 서류를 중서성에 제출한 시기가 아니었나 추측해 둔다.

또 하나의 삼신인설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지리지의 삼성(三姓) 다음에 붙은 을나라는 명칭이다. 지리지는 탐라국이 개국하였을 당시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54) 고려 초-중기의 재상은 종2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中書門下省 5명과 中樞院 7명으로 구성되는 고급관원이었다. 재상들은 中書門下省의 門下侍中(종1품)·中書侍郎平章事(정2품)·中書平章事(정2품)·門下侍郎平章事(정2품)·門下平章事(정2품)·參知政事(종2품)·政堂文學(종2품)·知門下省事(종2품), 尙書省의 左僕射·右僕射(정2품)·知省事(종2품), 中樞院의 判院事(종1품)·院使(종2품)·知院事(종2품)·同知院事(종2품)이었다. 首相은 門下侍中(종1품)을 지칭한 것이며, 각 직책마다 정원 1명이었는데 院使만 2인이었다(변태섭,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1977, 60쪽).

라는 3성의 존재를 들고 있는데, 이런 ‘을나(乙那)’라는 이름은 여진족의 추장명(酋長名)하고 관계가 있었다(〈표 4〉 참조).⁵⁵⁾ 필자는 이것이 고려 초기에 전개된 고려의 대외정책, 즉 기미정책(羈縻政策)⁵⁶⁾에서 유래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乙那’와 같은 여진식(女眞式) 명칭은 현종대에 시작하여 인종 여진족 아골타(阿骨打)가 예종 10년(1115) 금국(金國, 1115-1234)을 세우고 고려에게 칭신(稱臣)을 요구해오기까지 특정한 시대에 사용된 여진과 탐라의 추장 명명법(命名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에 비추어 지리지의 삼신인설화는 현종대~예종 10년 사이에 고유와 관련하여 문서화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조정은 무산계를 탐라 이외에 북방민족인 여진족 추장에게 집중적으로 수여하고 있었다. 여진족과 고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탐라 성주·왕자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진족의 내투기사(來投記事)는 「고려사」에서 태조 때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현종대(1009-1031) 63회 정도 보인다. 그 후 여진 내조(來朝)는 100여 년이나 400여 회 정도가 되는데, 그 중 128회가 문종대(1046-1083)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예종대(1105-1122)까지 계속되다가 인종 즉위년(1122)에 단절되고 있다.⁵⁷⁾ 그러므로 여진족의 고려 내투는 주로 현종~예종대(1009~1122)에 일어났다고 하겠다.

고려는 내부(來附)한 여진을 원칙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정상에 따라 하사품(下賜品)을 내리는 ‘사물(賜物)’과 수직(授職)하는 ‘직상(職賞)’이 있었다. 사물(賜物) 내지 직상(職賞)은 모든 내부자(來附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충성 정도에

55) 진영일,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인문학연구』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2), 102-104쪽.

56) 기미(羈縻)의 字意는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를 가리킨다; 羈: 馬絡頭也, 縻: 牛轡也 「說文解字」. 고려의 여진에 대한 기미주 설치는 중국 漢代의 주변민족의 관계를 규정하고 천하질서를 운영하는 기본적 원리인 「羈縻之義」에서 학습한 외교대책이었다. 그 뜻은 「羈縻不絕而已」란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羈縻」란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를 뜻하지만, 두 자가 합하여 숙어화할 때는 牛馬처럼 견제함을 의미한다. 〈不絕〉이란 국교의 유지, 구체적으로는 사자의 왕래를 가리킨다. 「而已」란 「不絕」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不絕」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란 군사적 공세와 정복·주변민족의 郡縣 편입·관리파견을 통한 지배 등을 포괄한다. 요컨대 「羈縻之義」란 주변민족이나 국가를 중국화하지도 않고 敵國化하지도 않는 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중국의 확대와 중국의 축소를 모두 거부하는 「羈縻之義」는 중국과 夷狄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구분되며,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華夷分別論에 근거한다(김한규, 「漢代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97쪽).

57) 김상기,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 『국사상의 제문제』 4, 1959, 88-126쪽.

따라 내리었으므로 내부자 중 극히 일부의 번추(蕃酋)가 이 은전(恩典)을 입을 수 있었다. 하사물의 품목은 은자(銀子), 금백(金帛), 견주(絹紬), 면포(綿布), 의복(衣服), 기명(器皿), 화물(貨物), 주식(酒食), 전택(田宅) 등이었다.⁵⁸⁾

투화(投化) 여진에 대한 고려의 우대정책에서 보다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은 그들에게 직첩(職牒)을 수여하는 회유책이었다. 그런데 여진에게 수여하는 관직(官職) 또는 직계(職階)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직(實職)이 아닌 무산계였다. 탐라 성주층에 수여한 무산계는 5종밖에 안되었지만, 여진족 추장에게는 무산계 직제에도 없는 것과 더불어 13종의 무산계가 수직되어 그 빈도와 회수가 훨씬 다양하였다.⁵⁹⁾

문종대에 이르면 동변여진의 일부가 고지를 떠나 집단으로 고려에 이주하여 고려 백성으로 편입되는 경우와 더불어 장성 밖의 원근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촌락들이 자진하여 고려에 칭신(稱臣)하고 고려의 주군(州郡)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고려정부는 지속적인 축성사업과 함께 귀부해 오는 여진의 거주지에 고려식 주군을 설치하는 '기미주(羈糜州)' 확대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기미주란 고려에 귀순한 여진촌락을 구분하여 각기 州名을 내려주고 여진추장을 도령(都領)에 임명하여 도맡아 다스리게 하는 귀순 여진인의 자치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정부가 문종대로부터 예종대(1105-1122)에 이르기까지 행했던 천리장성(千里長城) 너머로 영토확장은 이 기미주의 바탕 위에서 온건적이고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에 복속하여 귀화한 여진의 땅을 '화내'라 하는데 화내의 지역에서는 거주를 인정하고 그 생존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진인의 자치를 허용하였다.⁶⁰⁾

당시 고려가 화내기미주(化內羈糜州) 여진을 지배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화내 제지역(諸地域)에 주호(州號)를 설정하고 주기(朱記 : 告身狀)를 하사하여 화내의 여진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2) 고려의 화내지역에 대한 지배력은 비교적 강력하여 기미주 안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거란과도 통교할 수가 없었다.⁶¹⁾

고려는 내부한 여진을 화내지역에 거주시켜 일종의 자치주인 기미주를 만들 경우, 주호(州號) 책정, 고신장(告身狀) 발급, 성씨를 내리는 사성(賜姓[姓氏下賜]) 등의 시책을 시행하였다. 그 예를 『고려사』 문종 27년 1월 을미 기사에서 보면, 고려조정은

58)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편위, 1981, 291-302쪽.

59) 앞 논문, 특히 297-299쪽.

60) 崔圭成,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319-320쪽.

61) 앞 논문, 319쪽.

귀순해 온 여진 추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었다.

문종 27-1-을미, 동여진의 귀순주 도령(都領) 대상(大常) 고도화(古刀化), 부도령 고사(古舍), 익창주(益昌州) 도령 귀덕 장군 고사(高舍), 도령 금부(黔夫)와 전성주(靛城州) 도령 봉국 장군 야호(耶好), 귀덕 장군 오사불(吳沙弗)과 공주(恭州) 도령 봉국 장군 다로(多老), 변장 파아불(巴阿弗)과 은복주(恩服州) 도령 원보아홀(元甫阿忽), 도령 나거수(那居首)와 온주(溫州) 도령 삼빈(三彬), 아로대(阿老大)와 성주(誠州) 도령 이다불(尼多弗) 등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귀순하여 와서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를 청원하였다. 왕이 그들을 가상히 여겨 고도화의 이름은 손보새(孫保塞)로, 고사(高舍)의 이름은 장서충(張誓忠)으로 명명하여 각각 회화 대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야호의 이름은 변최(邊最)로, 다로의 이름은 유함빈(柳咸賓)으로 명명하여 각각 봉국 대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오사불의 이름은 위번(魏蕃)으로 명명하여 회화 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아홀의 이름은 양동무(楊東武)로 명명하여 귀덕 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고사(古舍)의 이름은 문격민(文格民)으로, 금부의 이름은 강적(康績)으로, 파아불의 이름은 노수(盧守)로, 나거수의 이름은 장대원(張大垣)으로, 삼빈의 이름은 한방진(韓方鎭)으로, 아로대의 이름은 고종화(高從化)로, 이다불의 이름은 조장위(趙長衛)로 명명하여 각각 대상 벼슬을 주었다. 그리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⁶²⁾

고도화(古刀化) → 손보새(孫保塞), 고사(古舍) → 장서충(張誓忠), 야호(耶好) → 변최(邊最), 다로(多老) → 유함빈(柳咸賓), 오사불(吳沙弗) → 위번(魏蕃), 아홀(阿忽) → 양동무(楊東武), 고사(高舍) → 문격민(文格民), 금부(黔夫) → 강적(康績), 파아불(巴阿弗) → 노수(盧守), 나거수(那居首) → 장대원(張大垣), 삼빈(三彬) → 한방진(韓方鎭), 아로대(阿老大) → 고종화(高從化), 이다불(尼多弗) → 조장형(趙長衛) 등에게 姓名을 하사하고 있었다.

위의 기사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한다. (1) 阿老大는 高從化로 고려식 성명을 얻고 있었다. (2) 고려조정으로부터 성명 하사는 고려의 화내기미주(化內靑麻州) 편입에 필요한 요식 행위(要式行爲)였다. 이것은 여진인이 고려식 성명을

62) 乙未, 東女眞歸順州都領大常古刀化·副都領吉舍·益昌州都領歸德將軍高舍·都領黔夫·靛城州都領奉國將軍耶好·歸德將軍吳沙弗·恭州都領奉國將軍多老·番長巴詞弗·恩服州都領元甫阿忽·都領那居首·溫州都領三彬·阿老大·誠州都領尼多弗等, 率衆內附, 乞爲郡縣, 賜古刀化名孫保塞·高舍名張誓忠, 各授懷化大將軍, 耶好名邊最·多老名劉咸賓, 各授奉國大將軍, 吳沙弗名魏蕃, 授懷化將軍, 阿忽名楊東武, 授歸德將軍, 古舍名文格民·黔夫名康績·巴阿弗名盧守, 那居首名張帶垣·三彬名韓方鎭·阿老大名高從化·尼多弗名趙長, 各授大常, 仍賜物有差. 城州都領奉國大將軍蘇德等十四人, 來獻名馬.

칭하게 하여 고려와의 문화적 동일성을 확책하는 정책이었다. (3) 귀순 여진인들의 그들의 기존 위계를 참작하여 대장군, 장군, 대상(大常)등의 벼슬을 수여하여 그들 내부 자치주, 곧 기미주에서 민정(民政) 책임자로 삼고있었다.

고려가 자치주인 기미주 설정하여 여진족을 회유-동화하려는 대외정책은 탐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탐라 측에서 공물 헌상, 고려 측에서 그 반대급부로서 무산계가 하사되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숙종 10년 '개탁라위탐라군(改毛羅爲耽羅郡)'이라 하여 읍호개정(邑號改定) 조치가 있었다. 또 말로(末老, 태조 21년), 주물(周物, 현종 15년), 고오노(孤烏弩, 현종 20년),加利(정종 9년), 두라(豆羅, 정종 9년), 호잉(號仍, 정종 9년), 부을잉(夫乙仍, 문종 3년), 수운나(殊雲那, 문종 7년), 고물(古物, 문종 7년), 가야잉(加也仍, 문종 22년), 가어내(加於乃, 선종 3년), 가량잉(加良仍, 선종 7년), 구대(具代, 숙종 6년) 등 성주 명칭은 바로 여진식(女眞式)이었다. 그리고 이런 여진식 이름은 숙종 6년 탐라 신성주(新星主) 구대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예종(1105-1122) 이후 여진인의 내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과 부합된다. 이런 사실을 참작하여 보면, 고려조정은 탐라 성주들에게 '가야잉(加也仍)' 등의 여진식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여기서 이름이 아닌 성씨고씨(姓氏高氏)가 사성(賜姓)이었는지 자칭(自稱)이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필자는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문종의 기미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시기에 고한(高漢), 고헌(高叶), 고일(高逸)의 성주들, 그리고 표류민 고려(高礪) 4인이 고씨 칭성을 하고 있었다. 그 후 고복(高福), 고적(高的), 고물(高勿) 등의 고씨 성주들이 계속 등장하여, 고려의 기미책 추진과 성주의 고씨 칭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었다 하겠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고씨성의 성립이 고려 대외정책인 기미책과 무산계 수작(受爵)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 성립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필자는 고씨성(高氏姓)의 성립시기를 현종 15년(1024) 주물(周物)의 아들이 고려조정으로부터 무산계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종3품)'을 받으려고 그때 요구되는 요식행위로서 '고물(高沒)'이라 성명을 붙이기 시작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후 11세기 문종대를 거치면서 성주층은 고씨를 그들의 성씨로 자리잡게 하였다. 이후 고씨는 천년이나 걸쳐서 본도의 최고 성씨로 자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리지 소재의 '乙那' 성명에 관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이것은 여진식 명칭이라는 것이다. (2) 이것은 고려조정이 귀순해온 여진족 추장들에게 사성(賜姓)과 무산계를 수여하여 그들을 기미(羅糜)하는 대외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었다. (3) 본도의 성주층도 이런 기미책의 일환으로 여진족처럼 대우되어 사성과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4) 본도 성주층은 태조 21년(968) 말로(末老)로부터 시

작하여 선종 7년(1090) 가량잉(加良仍)이 여진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집중적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문종대(1046-1083) 부을잉(夫乙仍), 고물(古物), 가야잉(加也仍), 가어내(加於乃), 가량잉(加良仍) 등이었다. (5) 지리지의 '乙那'라는 이름은 고려가 빈번하게 여진족과 탐라에 대해 기미책을 시행하던 시대, 즉 11세기 현종~문종대(1009-1083)의 어떤 역사적 시점을 반영한 역사적 호칭이었다고 하겠다. 좀더 그 시대를 좁히자면,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리지의 '乙那' 호칭은 문종 11년(1057) 고유의 중앙관직 취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한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리지 소재의 古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其古記云'의 '古記'는 문종 11년(1057) 고유가 증서문하성 우습유란 관직을 얻기 위해서 간단한 족보와 같은 가첩(家牒)의 형태로 증서성에 제출하였던 행권가장(行卷家狀)의 일부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제주 고씨성이 현종 15년 고물(高沒)이 처음으로 칭성하기 시작하여 문종 15년 경에 고유가 관직을 얻기 위해 그 세계를 문서화하였을 때 대강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古記에 나타나는 비역사성(非歷史性)의 원인은 대충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가 신라에 병합된 것이 서기 660년이니까 문종 11년(1057)년 고유가 우습유(右拾遺)란 벼슬을 받기 위해 「행권가장」을 낸 시기와 벌써 400년 가까이 지났다. 이 사백 년이란 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적 기록이 제도화되어 보관되지 않았던 본도의 변방성(邊方性)을 아울러 생각하면 古記의 작자가 무엇 때문에 백제의 존재를 기억이나 하겠으며, 아니 그 후 패권을 잡은 신라왕들조차 무슨 기억할만한 가치나 있었겠는가. 필자는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조(耽羅縣條)에서 삼신인이라는 신화적 부분과 고후 등의 역사적 부분을 일단 분리할 것을 제의한다. 그리고 삼신인설화로 장식된 신화적 부분은 그 역사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4. 三神人의 諸像

지금까지는 삼신설화(三神說話)의 역사적 배경을 탐색해왔다. 그래서 삼신에 관한 고기류(古記類)가 있어왔고, 이것이 고려시대 고씨 가문의 중앙정계 진출과 도내에서 그들의 정치적 탁월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三姓神話' 또는 '을나신화(乙那神話)'⁶³⁾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런 삼신설화에 대

63) 전경수,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266쪽. 여기서 그는 三姓神話라는 용어 대신에 乙那神話라는 말을 쓸 것을 제의하고 있다. 즉,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

한 연구가 역사 이외의 분야, 특히 민속학 분야에서 일찍이 행해져왔다. 그래서 그 연구업적들 중에 주의할만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용준(玄容駿)은 이 삼신설화를 '三姓神話'라고 부르면서 그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삼신인(三神人)에 관한 화소(話素)는 제주도 무속신화(巫俗神話)인 당신(堂神)본풀이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당신(堂神)본풀이에는 송당(松堂)본풀이, 호근리(好近里) 본향당(本鄉堂) 본풀이, 사계리(沙溪里) 큰물당본풀이, 감산리(柑山里) 호근이마루 여드렛당본풀이 등이 있다. 이들 중에 송당본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알손당(舊左邑 松堂里)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男神)이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जू도(女神)를 맞아 부부가 되어 사냥하며 산다. 아들을 많이 낳아 살림이 어려우므로 부인의 권유에 따라 농사를 짓는다. 소천국은 넓은 밭을 갈다가 배가 고프자, 밭 갈던 소와 이웃 밭에 풀을 뜯는 소까지 잡아먹어 요기를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부부가 이별한다.

이런 당신본풀이의 특징은 남신(男神)들이 한라산(漢拏山), 송당(松堂) 등 도내의 어느 신성한 곳에서 솟아나는 점과 사냥을 하여 생계를 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용출일자(湧出日字)가 밝혀진 것은 을축(乙丑) 3월 13일이거나 3월 보름날로 되어있다. 신들이 땅속에서 솟아난다는 화소(話素)는 이 외에도 조천면(朝天面) 북촌(北村), 조천면(朝天面) 선흘(善屹), 구좌읍(舊左邑) 행원(杏源), 한동리(漢東里) 당신(堂神) 본풀이 등에 무수히 발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삼성신화(三姓神話)의 삼신인(三神人)이 땅속에서 용출하여 수렵생활을 했다는 삽화가 바로 제주도 내의 당신 본풀이와 같은 유형임을 알게 한다.⁶⁴⁾

필자는 이런 본도의 '종지용출(從地湧出)'의 내용을 가진 무속노래가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 등의 토대가 된 古記類가 아니었는가 한다. 이것이 문종이래 고려정부에 성주층에 수여되는 무산계(武散階) 작위를 받는데 기재사항이 되는 칭성(稱姓)의 근본이 되었고, 과거시험 때 공원(貢院)에 제출되는 「행권가장(行卷家狀)」

던 올라신화는 중국으로부터 이전 및 변형된 성리학적 사상과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가족주의와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가문위세라는 가족적인 의미로 전락되었고, 이러한 과정에는 조선초기에 중앙으로 연결되는 벼슬을 지낸 고씨 중심의 지식인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략) 이 과정에서 올라신화의 중심개념은 성씨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올라신화는 일제의 문화식민주의적 정책과정에서 "삼성신화"라는 제목으로 포장되고, 조선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교과서 제작에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4)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1992) 190-192쪽.

종류의 서두(序頭)가 되었지 않았는가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이 설화에 대한 해석들이 있다. 고고학적 입장에서 이 청규(李清圭)는 제주도 고고학적 연구성과에서 삼신인의 고고학적 시대를 특정하고 있다. 즉 김녕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점토띠토기와 그 직후의 탐라시대 전기(1-5세기)의 유물이 대량 출토한다. 따라서 삼성신화의 혈거생활이 신석기시대부터 탐라시대, 절대연대(絶代年代上)으로 기원전 10세기경에서 기원후 5세기경까지 어느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다. 다음 삼신인은 수렵생활을 하는데 반하여, 새로 온 삼신녀(三神女)는 오곡을 갖고 온 농경집단이었다. 농경의 증거는 대정읍 상모리 공렬토기 형식의 무문토기 사용집단의 유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추정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 전후한 시기로 이해된다고 하였다.⁶⁵⁾

민속학적 입장에서 허남춘(許南春)은 삼신녀가 바로 철기·직조·농경 문화 등의 선진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본도에 들어와 수렵채집의 토착세력과 결탁하게 된 도래인(渡來人)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화 종류는 수로(首露)의 비(妃) 허황후(許王后) 도래(渡來)신화에서 볼 수 있다. 허황후는 금수능라(錦繡綾羅), 의상필단(衣裳匹段), 금은주옥(金銀珠玉)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은 삼성신화에서 삼여신이 가져 온 오곡종자 등과 같은, '인간생활과 국가건설에 소중한 것'인데, 직조(織造)의 선진문화와 기술을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주몽의 어머니 유화(柳花)는 주몽과 함께 국가 수호신으로 숭상 받았는데 그 이유는 건국시조를 낳았다는 사실과 주몽에게 오곡종자(五穀種子)를 전해주었다는 행위와 관련된다. 탐라신화의 三女神은 도래시(渡來時) 오곡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아, 생산을 주관하는 곡모신적(穀母神的)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삼여신(三女神)도 선도성모나 고구려의 유화처럼 '神母' 혹은 '성모(聖母)'로 숭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성신화는 삼국의 건국신화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신화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였다.⁶⁶⁾

65) 李清圭, 「三姓神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耽羅文化』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31-132쪽. 그러나 그는 “제주도에서는 역사시대에 들어선 이후로 농경 말고도 수렵과 어로에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제주도에서는 어로수렵단계에서 농경단계로 갑자기 옮겨간 시대는 없었으며, 따라서 앞서 삼성신화의 관련된 내용은 수렵중심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농경중심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기원전 1세기 전후한 시기에 기존 공렬토기 사용집단에 점토띠토기집단이 등장한 것과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66) 許南春, 「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耽羅文化』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45-149쪽.

이청규와 허남춘은 둘 다 삼신인설화를 수렵채집 농경목축 생계경제라는 역사적 발전단계론의 관점에서 그 역사성을 파악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고든 차일드(Gordon Childe)가 주장한 농경과 가축의 존재를 문명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신석기혁명(新石器革命 Neolithic Revolution)⁶⁷⁾이론을 전제한 신화해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이청규 교수도 지적인 바와 같이 본도가 완전히 지배적인 생계양식으로서 농경과 목축에 의존한 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⁶⁸⁾ 이것은 설화 또는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전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신석기혁명설은 후에 국가 발생설과 맞물려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가 지적은 농경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전환이 바로 탐라국과 같이 국가와 같은 사회조직의 변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기구의 변화가 선행되고 그 후에 기술, 생계, 그리고 기타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수렵생활 농경의 도입 탐라국의 형성이라는 일련이 도식은 그리 쉽게 설정되지 않는다.⁶⁹⁾

필자는 삼신인 설화를 이해하는 데는 구조-기능면을 중시하는 공시적 분석이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현용준 이 제시한 삼신인설화의 우주론적 측면이 삼신인설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삼신인 설화를 西-地(山)-男-가난/東-海-女-풍요라는 구조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도덕적 개념을 가미하여 이를 숭고(崇高)·선량(善良)·공명(光明)의 세 가지 가치개념을 기본가치관으로 하여 이것을 모든 문화현상에 확산시키고 있는 삼분체계(三分體系)의 사고논리(思考論理)가 삼신인 설화에 반영되어 있다 한다.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 구조적 분석을 제시하겠다. 삼신인 설화는 우주삼라 만상을 둘로 나누어 서로 교환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사고체계를 보면, 삼신인(三神人[男])/처녀삼인(處女三人)[女], 종지용출(從地湧出)/동해(東海), 피의육식(皮衣肉食)/구독오곡(駒犢五穀)이라는 이항적(二項的) 형식의 구성이 보인다. 곧 이 삼신인 설화는 땅에서 솟아나고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는 남성인 삼신인에 대하여 바다에서 오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치며 오곡종자를 가진 세 여인이라는 서로 대립적이며 보완적인 이항적(二項的)

67) Gordon Childe, *What Happened in History*, Penguin Books, 1978, pp. 55-56.

68) 주 44) 참조. 이청규 교수는 같은 논문(130쪽)에서 '따라서 고고학자료로서 갖추어야 할 신중한 자세 학문적 자세와 현재의 제주도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금번 고고학적 자료를 신화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필자의 발표문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여 신화와 고고학을 대응시키는 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69) 찰스 레드만(Charles L. Redman) 지음·최몽룡 옮김, 『문명의 발생』(민음사, 1995), 370쪽.

요소들으로써 제주도의 인간이 탄생하였다는 설화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필자는 이런 이분법적(二分法的) 사유체계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쓰(Claude Levi-Strauss)가 野生人들이 자연체계에서 취하는 반족(半族, moiety) 개념의 출현이라 생각한다.⁷⁰⁾

또한 이런 사고 내용에 숨어있는 원리는 교환의 법칙이 담고있는 철학이다. 그 철학은 증여(贈與)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다 민족학적(民族學的)인 뉘앙스에서 말하자면, 만일에 어떤 씨족이나 가계(家系)가 딸이나 여자를 주면, 그 씨족이나 가계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다른 여자나 딸을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보장과 신용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 요소들이 그대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끼리끼리 모이는 '전체화(再全體化)'의 추진력을 지닌다고 한다.⁷¹⁾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필자는 「고려사」 지리지의 삼신인 설화가 여자를 교환하는 두 집단, 곧 반족(半族)의 사회구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필자는 삼신인 설화 또는 신화는 역사적-통시적(歷史的-通時的) 분석만이 아니라 설화에 내재된 논리구조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 설화라든지 신화 등으로 표현되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추종해야 할 어떤 영원한 모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⁷²⁾

삼신인 설화에 나타나는 남녀의 결합 설화는 이 섬사람들이 결국 '균형(均衡)'과 '교환(交換)'을 통한 질서의 유지가 주목적이었다. 세상만사는 '균형'과 '교환'이 없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守分하는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70) 김형효(金炯孝), 「構造主義의 思惟體系와 思想」(인간사랑, 1989), 187-189쪽: 草食동물의 관심을 끄는 것은 풀이 아니라 풀의 種들 사이의 차이이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도 種들의 다양한 차이가 자신들과 思考를 움직이게 하여 주고, 하나에서 여럿에도 또 그 逆으로 가는 分類와 類別의 체계를 갖추게 한다. 種들의 差異인 「種差」가 인간의 사고를 객관적 기호체계로 연계 하는 진원지가 된다. 그와 같은 기호체계는 언제나 「二項的 형식」을 취하고 있다. [...] 野生人들은 자연체계만 일언 二分法이나 二項的 대립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住居의 마을까지도 二項的 구조로써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북부의 「윈네바고」(Winnbago) 종족은 그들의 마을을 「위/아래」, 「천둥/땅」, 「낮/밤」, 「여름/겨울」, 「오른쪽/왼쪽」, 「西/東」, 「암컷/수컷」, 「평화/전쟁」, 「종교활동/정치활동」, 「창조/보존」, 「안정/운동」, 「聖俗」 등등이다.

71) 위의 책, 116-120쪽.

72) M. 엘리야데, 「우주와 역사: 영원회귀의 신화」(現代思想社, 1992) 135쪽: 전통사회에서 삶이란 무엇보다도 인간 이외의 모델을 좇아 사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原型을 재의하고는 참으로 실제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 곧 원형과 일치하는 삶은 “법”을 존중하게 된다. 법은 유일한 원초적인 聖顯, 아득한 그때에 이루어진 존재 규범의 示顯, 그리고 신이나 신화적 존재에 의하여 開陳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인이 모범이 되는 행위의 반복과 주기적인 의례를 통하여 시간을 무효화시켜 버려 버리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삼신인 설화가 성립된 역사적-통시적 시간성도 무시될 수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필자는 그 삼신인 설화의 역사상 성립 시기를 삼국 초가 아니라, 고유(高維)와 고조기(高兆基)가 고려 중앙정부에 벼슬을 하던 11~12세기[문종~의종] 때로 설정한다. 필자의 이런 시기 설정은 조선시기를 고씨 가문의 확립기라고 생각한 연구자에 비하면 그 연대를 너무 올려 잡은 것이 될 것이다.⁷³⁾

삼신인 설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 있는 문제가 있다. 성주충은 자기들을 성주라는 낭만적 이름으로 불렀는데 막상 그 유래와 의미에 간해서는 아무런 설명 단서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간접적인 증거이거나 그 의미를 더듬어 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한 논문⁷⁴⁾에서 탐라국 시초부터 토착지배층이 해외무역을 하여 재부를 축적하고 중국이 제시하는 국제외교의 요구사항인 조공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던 국제적 개명인(開明人)이었다고 했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첫째 자격이 항해자 능력이었다 하겠다. 그들이 본도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 가자면 장거리 항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장기 항해에는 다른 항해 식별지식보다도 별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백제 때부터 육지와와의 교류 필요상 탐라 세력가들은 항해를 해야 했으며, 항해에는 별에 대한 지식이 첫째로 요구된다. 이와 연유하여 항해 지휘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을 성주라고 부르지 않았나 한다.

이런 필자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을 연구한 그레이엄

73) 全京秀,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264쪽: 조선조에는 제주도에 파견되어온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三姓”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삼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상소의 형태로 또는 복명서의 형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三姓廟”를 조성하는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현재의 “삼성혈”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한 맥락 하에서 조성된 구조물들의 유혼인 것이다. “삼성묘”를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로 중앙정부에서 종묘를 세운 것과 유사한 성리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창시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성씨 세 분을 중심으로 종묘와 같은 것을 제주도에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의 민심을 얻자는 중앙정부의 계산이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金孝鉉, 『濟州島歷史誌』(1960, 非賣品), 20쪽: 제주도의 三姓廟는 개국 시조라는 3부족장을 제사하는 家廟를 전신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유교 講學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英祖 39년(1763) 이후 제주도의 지배를 위하여 파견한 牧民官이 도민 중 토호세력가의 高良夫 三姓을 개국 시조로 꾸며대고 그것을 신격화하여 우매한 농민대중에 三神人이 毛興穴(三姓穴)에서 솟아 나왔다는 우상 의식을 철저히 부각시켜 人民의 우매에 올라 앉아 있는 土豪 및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대한 인민 세력의 반항 운동을 억압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이반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수법으로써 신권 정치의 가면을 땀시 좋게 확장하여 그럴듯하게 합리화한 것이 三姓神이며 三姓穴이기도 하다(20쪽).

74) 졸고,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3, 제주도사연구회 편, 1994.

클라크(Grahamme Clark)의 말을 들어보면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폴리네시아 인들은 때때로 멀리 떨어진 다른 섬들을 관해서도 면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퉁가 인들은 멀리 500마일 떨어져있는 153개의 다른 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퉁가 인들은 또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840마일을 쉬지 않고 항해한 다음에 돌아오기도 했고, 또한 1,400마일을 항해하고 돌아오면서 단 한 번 쉬기도 하였다. [……] 폴리네시아 인들은 주로 이전의 항해 경험에 의존하여 항해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보트 자체 말고는 다른 장비가 거의 없었다. 하와이인들의 '신성한 호리병박'은 사발에 나란히 구멍을 뚫어 이 구멍을 통해 별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눈금을 새긴 막대에 기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건조한 육지에 도달하기 위한 안내자로 삼기 위해서 철새, 대양의 큰 파도와 해류,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해초 조각과 멀리 떨어진 화산이 내는 빛 같은 표시물 등이 면밀히 관찰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별이 더욱 중요했다. 폴리네시아에서는 천문학과 항해는 거의 같은 것이었다. 별에 대한 지식은 끊임없이 수집되었고 항해에 적용되었다.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왕족과 같은 중요한 가문에 이 일을 전담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지식을 통해 바다에서 해와 별을 보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천체 반구를 구상할 수 있었다.⁷⁵⁾

이런 견해에 의하면 장거리 항해를 하자면 별에 관한 천문학적 지식이 제일 중요하며, 이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왕족과 같은 중요한 가문에서 전담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 탐라국 성주들은 항해를 위한 전문지식을 담당하였고, (2) 이들은 이런 지식과 기술을 세대들을 걸쳐 전담하는 자들이었는데, (3) 본도의 평민이 아닌 왕족 비슷한 성주층이었다. 한마디로 하자면, 성주들은 별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항해에 적용하는 전문 항해사들이었다. 이들이 별과 항해의 主人, 즉 星主라고 불려졌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참고하면 탐라 성주층이 항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성주'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나 한다.

마지막으로 삼신설화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이 있다. 남태평양의 신화를 연구한 인류학자 말리노우스키(Malinowski)의 견해이다. 그는 신화(myth)를 토착하는 초자연적 존재(神)에 관계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라 하면서, 남서 태평양 제도(諸島)의 신화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 기원, 촌락과 그 하부 씨족들의 사회화, 이 세상과 저 세상간의 영

75) 그레이엄 클라크(Grahamme Clark) 지음·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 길, 1999), 54-56쪽.

원한 관계의 성립에 관해 언급한다. 이 신화들은 이 大地에 地下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한다. 최초 인간은 땅 속에 있었으며, 거기서 일정한 규칙과 습관을 따르고, 사회적 분화(divisions)에 속하여 있으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보요와(Boyowa)란 특정한 지역 표면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이외에는 신들이 지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⁷⁶⁾ 특히 트로브리앙 섬들에 관한 신화적 이야기들에서는 씨족, 하위 씨족, 그리고 영웅들의 거주지들이 묘사되어 있다. 곧 영웅들은 지하에서 출생하였고, 이 지상에서 그들은 토tem적 하위씨족의 최초 대표자이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신화는 사회관습을 고정시키며, 행동양식을 재가(裁可)하고, 사회제도에다 중요성과 위엄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갖고있다.⁷⁷⁾

필자는 말리노우스키의 이와 같은 지적이 본도의 삼신인 이해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제주도도 태평양 변경의 한 개 섬이며, 이 섬들 사이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는 삼신인 설화에 관하여 다음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놓겠다. (1)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문화영웅들(heros)이라 할 수 있는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從地聳出). (2) 이 설화는 최초 인간들이 살기 시작한 때 일어난 사건들, 곧 삼신인의 지상 용출, 세 처녀의 본도 동쪽 해안에 표착과 상륙, 삼신과의 혼인, 좋은 땅 찾기(泉甘土肥處), 삼성의 거주지 결정 등을 말하고 있다. (3) 거주지 선정 과정에서 삼신인은 사회적 신분이 상하로 분열하여 그들 사이의 서열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차례대로 그 서열이 배정되고 있으나, 이것은 지리지 편찬자 양성지(梁誠之)가 고의로 양을나를 제일위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족보류인 「성주고씨가전」이나 「영주지」에는 고씨가 첫째로 등장하고 있고, 고려 문종대 이래로 고씨가 성주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씨를 서열 제일위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4) 이렇게 하여 삼신인들에 의해 개국한 된 것이 탐라국이었다. 특히 삼신인의 후예인 삼성, 그 중에서도 특히 고씨는 탐라국의 개국의 주역이었으며, 또한 최초의 거주자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 섬의 최초 거주자이며 그 후 최초의 산업과 문화의 창시자이었다는 바로 원초성(原初性) 주장이 고씨가 이 땅의 모든 자원에 대해 선취권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다. (5) 삼신인의 15대 후손인 삼형제는 그 당시 유일한 정치권위를 지닌 신라왕조에 조공하게 되었다. 이에 응하여 신라왕은 천상(天上)로서 나타난 성

76)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1961, pp. 303-305.

77) 위의 책, 317쪽과 328쪽.

상(星象)의 계시에 따라 그들에게 성주·왕자·도내(都內) 등의 작위를 주었다. 그래서 고씨는 한반도의 유일한 패권국인 신라왕정에 의해 이 땅의 주인으로 공인되었다. 그리고 성주·왕자·도내라는 관작(官爵)이 천상적인 별의 계시에 의해서 배정되었다함은 이것은 인간이 변경 불가능한 영원한 천상적 제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6) 그러나 이런 삼신인 설화에서 삼성(三姓)의 존재는 삼신에 대응하여 그 구색을 갖추어 놓는 조작이었다. 모든 면들에서 고씨들, 즉 고후·고청·막내가 주역을 담당하여 전개된 설화이다. 따라서 이 삼신인설화는 고씨가 신인의 후예로서 신성한 존재이며, 본도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징발-징수에서 선취권을 가졌다는 이데올로기였다고 하겠다.

결론

본고는 고려기 성주와 삼신인 설화에 대한 역사적 탐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 (1) 삼신인 설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영주지」는 신라의 조공, 신라 초기 성씨 존재 여부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역사 사료로써 이용할 수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려사」 지리지 耽羅縣條가 삼신인설화의 더욱 충실한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2) 「고려사」 탐라현조 서두에 인용된 古記는 문종 11년(1057) 고유의 中書省 右拾遺의 除授를 위해 제출한 行卷家狀과 같은 종류의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성격은 족보가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간단한 조상 내력을 기재한 고씨 가문의 家牒類였을 것이다. 古記類가 후에 조선 초기에 고씨 가문의 삼신인 설화의 母體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조선왕조 世宗代(1418-1459)에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조 서두의 기본자료가 되었다.
- (3) 성주층은 고려왕조로부터 武散階 관작을 받기 위해 그때 필요한 형식인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종 15년(1024) 탐라추장 周物의 아들 高沒이 高氏를 칭한 것이 제주고씨의 출발점이 되었다.
- (4) 작자-연대 불명인 「영주지」는 대개 세종 32년(1450)년에 高得宗의 저작인 「長興高氏家乘」이 필사되어 전해진 것이다. 그것의 내용은 신선사상에 의해 윤색되어 있으며, 그래서 고씨 시조를 신격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私撰文書이다.
- (5) 「영주지」는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瀛州, 三神山, 青衣, 碧浪, 漢拏 등의 어휘로써 수식되어 있다. 이런 어휘는 신선사상에서 天仙界, 水仙界, 地仙界를 상징하는

仙詩語이다. 영주지는 고씨 시조들이 신선의 후예이며, 그래서 도내의 다른 가문들에 대해 패권적 지위를 주장하는 정치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

- (6) 삼신인설화는 三神人[男] / 處女三人(女), 從地湧出(地) / 東海(水), 皮衣肉食(사냥·날 것) / 五穀·駒糞(농경·가축)이라는 二項的 對立項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여자를 주고받는 결혼 방식의 일종이며, 二分的 사고체계의 반영이다.
- (7) 성주층은 南太平洋 諸島에서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세습 추장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들은 항해를 위해 별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고, 이를 특정 가문을 통해 세습시키고 있다. 탐라 성주층의 海洋性이 이들과 어떤 문화적인 親緣性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ise of Seongju(星主) class and the its ideology, Samsinin(三神人) in Koryo period and gets its results as following:

we can not believe Yeongjuji(瀛洲誌) as the historical sources in the respect of its claim that Ko family name(高氏姓) exists at early Sinla period. In contrast to Yeongjuji, the foreword, Tamlahyun, Jiriji in Koryosa(高麗史 地理志 耽羅縣條 [abbreviated as Jiriji]) is considered as the authentic archetype of Samsinin legend.

Gogi(古記) quoted from the Jirij has the possibility that Ko Yu(高維) hands in its application in the form of the family document for the official position, Jungseoseong(中書省) Useupyu(右拾遺) in 1057, the 11th year of Munjong's reign. This kind of Gogi had become the primary source of Ko family document and Jiriji during Sejong's reign in Choseon dynasty.

Seongju class puts Ko family name to good use to obtain the positions of office, Musangye(武散階) during in Early Koryo period. Especially, Ko mol(高沒), the son of the chieftain, Jumul(周物) is the first person who designates Ko as his family name.

Yeongjuji which is lack of its name of author as well its period is handed down as a copy of Jangheunggossigaseung(長興高氏家乘), which Ko Deug-Jong write about his ancestors. It is a simple private document of Ko clan, not an official records as historical source.

Yeongjuji is consisted of the phrases of Sinseon(神仙) thought, which use the words of the symbol like Yeongju(瀛州), Samsinsan(三神山), Cheongui(青衣), Byeoglang(碧浪), Hanla(漢拏). The purpose of this mythical thought is to mystify Ko clan as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secures its political hegemony in this island.

Samsinin legend is composed of the binary coding, which uses such the opposite phrases as Sininin(三神人)(male)/Cheonyeosamin(處女三人)(female) . This is related of the custom of marriage that is for the two groups to give and take their daughters with one another.

Seongju class has some similar characters to the chieftains of the South Pacific Islands in terms of their expert knowledge for sailing. Observing the stars at sea is the important know-how to navigate the ships to the destinations. Also two of them are much alike in character that they transmit their social statu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